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최경식*

목 차

- I. 서론
- II. 중국의 6·25전쟁 개입 과정
- III. 6·25전쟁에서 중공군의 역할
- IV. 역사적으로 본 북한·중국 관계
- V. 북한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 VI. 결론

I. 서론

2010년은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항미원조(抗美援朝)”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3월,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 발생 이후 취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 대국”으로 자처하는 국가가 취할 행동인지 의구심을 가진다. 이 사태를 북한이 저

* 국동대학교, 한국군사학회

질렀다는 것이 물증으로 나타나고 있던 시기, 중국국가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있는 한국대통령을 김정일 방중 3일전에 만나고도 “방중” 사실을 귀띔하지 않았다. 그리고 5월 20일, 한국정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1차 자료가 없어 확신할 수 없다”라는 공식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의 제5차 방중(2010. 5.3~7) 활동이 거의 공개적이었는데도 중국 외교부는 “黨[中連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즉, 중국공산당총서기 胡錦濤가 조선노동당총비서 김정일을 초청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언라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 차원”은 무엇이고 “정부 차원”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김정일이 중국 떠나던 날 뒤늦게 “김정일 방중”을 관영통신을 통해 보도했다.

김정일의 제6차 방중(2010. 8.26-30)도 김정일이 평양으로 돌아오고 난 뒤 북한과 중국이 관영통신을 통해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조중친선”이란 말을 24차례나 반복하며 항일투쟁 때부터 싹튼 양국의 혈맹관계를 강조했고 김정일이 길립시 육문(毓文)중학교 등 “김 일성 항일 사적지”를 돌아본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또 3대 세습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김정일의 발언들도 소개했다. 단지 중국 관영통신이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천안함 사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와 관련한 단어들을 등장시킨 것이 북한의 그것과 다르면 다르다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중국 사이의 이런 행태는 정상적인 국가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특수관계”라 단정 짓을 수 있고, 단순한 “순 치관계(脣齒關係)”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이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 일어나면서, 남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정후가 아닌지 전후 인과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6·25전쟁은 우리의 역사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한미동맹은 굳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발전에 매진한 결과 전체적 국력은 세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계수준이 되었고, 戰力도 북한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병영국가화 되면서 “軍隊”가 國家의 명운을 결정짓는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하여 망해가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국력이 커졌다고 해서 장차 발생 할지 모르는 북한 유사시에 잘 대처한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문제는 태생부터 단순한 남북문제가 아닌 국제문제였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전쟁도 국지전쟁이면서도 국제전쟁이 되었다.

현재 주변국가 중에서 한반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그중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방 전부터 6·25전쟁 그리고 현재까지 중국은 “중국공산당과 조선인의 관계”에서부터 “중국과 북한의 관계”까지 한반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그 영향력은 우리의 의지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중국은 한반도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

일본항복 후 38 선은 냉전의 분계선이 되었다. 이 선을 중심으로 美蘇는 한반도를 마치 “장기판” 대하듯 했다. 스탈린은 초기 “장기판”에 김 일성이라는 “패”만 올려놓고 “한반도 공산화”的 도박을 걸었다. 시작은 성공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패색이 짙어지자, “毛澤東”이란 “패”를 다시 올려놓았다. 소련은 “두 곰”이 재주를 부리도록하고 자신은 “中國人”이되어 “돈”을 챙기려 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냉전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미소 군비경쟁 속에서 소련은 결국 세계무대에서 사라졌다.

중국은 소련이 붕괴되던 시기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간판을 들고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富를 구가하게 되었고, 이제는 G-2의 일원이 되어 과거 소련이 북한에 대해 행사했던 영향력을 대신하면서 붕괴되는 북한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다. 중국은 “곰”에서 “중국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북한은 “잘못 길들어진 곰”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 곰”은 빈사상태에 있다.

우리는 “북한 핵”보다는 “북한 유사시”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 즉 “곰”의 날카로운 오른쪽 앞발보다는 그것을 지탱해주는 건강과 이 “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바로 6·25전쟁에서 중공군의 역할과 이런 역할을 하기까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인파와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유사시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유추하는 데 있다.

먼저 중국은 왜 6·25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는가? 필자는 학계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 가운데서, 북한·중국의 역사적 관계 위주로 개입의 필연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김일성으로부터 남침계획을 보고받을 시 중국수뇌부의 태도, 전쟁발발 후 행한 중국정부 차원의 조치와 군사적 대비, 참전 그리고 휴전회담 시 중국의 역할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戰後, “중조혈맹”관계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분이 될 수 있는가? “소련붕괴”와 “중국굴기”라는 과정을 거쳐, 중국이 소련을 대신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후견인으로 자처하는 행위가 북한 유사시에도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이다.

본 논문은 主題에 충실하기 위하여 “6·25전쟁에서 중공군의 개입과정과 역할”, “북한·중국관계” 그리고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로 한정 시켜 분석하고, 향후의 우리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II. 중국의 6·25전쟁 개입 과정

“미국대통령 투르먼은 남조선 이승만 괴뢰정부를 사주하여 조선내전을 일으킨 후, 6월 27일 미국정부는 우리의 대만해방을 무력으로 저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미제7함대는 이미 투르먼의 명령을 받고 대만연해로 출동하였다. … 사실상, 미국정부가 남조선 이승만 괴뢰군대를

6·25전쟁 시 종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教唆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한 것은 바로 미국의 예정된 절차로써, 그 목적은 미국이 대만과 조선, 월남, 필리핀을 침략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이며, 또 미 제국주의가 아시아 사무에 간섭하려는 진전된 행동이기도 하다.”(『周恩來傳』, 1998:50)

이것은 1950년 6월 28일, 6·25전쟁이 발발 후 중국정부가 내놓은 첫 반응이면서 “6·25남침”을 부정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거짓말이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이 이승만 괴뢰정권을 教唆해서 北侵”했다고 주장하고,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진주를 명백한 중국침략이라 규정하면서 이를 명령한 트루먼대통령과 미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1. 6·25전쟁 직전까지 중국대륙의 상황

중국의 6·25전쟁 개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25전쟁 직전까지 당시 중국대륙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45년 8월 15일, 國共사이에는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는 데서부터 마찰이 발생한다. 蔣介石은 일본군에게 八路軍이나 新四軍에게 투항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내나, 中國人民解放軍(이하 解放軍)은 후방에서 유격전을 전개한 이점을 이용하여 國民政府軍(이하 國府軍)이 내륙으로 진주하기 전에 일본군을 신속히 무장해제했다. 특히 동북지역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한 이점을 이용하여, 中共은 소련군으로부터 일본 關東軍의 무기와 장비를 인수하고 國府軍이 東北으로 진주하기 전에 東北三省을 거의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하였다.

1) 中國人民解放軍의 유래: “解放軍”的 전신은 제1차 국공내전 시 紅軍, 抗日戰爭 시 八路軍과 新四軍이다. “中國人民解放軍”的 칭호는 1944년 8월20일, 劉少奇가 軍委회의에서 “解放區의 正規軍、游擊隊를 합쳐 解放軍, 혹은 國民革命軍解放軍”이라 부른데서 유래한다. 정식 사용은 1947년 10월 10일 《中國人民解放軍宣言》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일본항복 시 중공산당 군대의 정확한 명칭은 八路軍 또는 新四軍이나 편의상 “解放軍”으로 부른다.

1945년 10월 10일, 蔣介石과 毛澤東 사이 국내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双十協定>을 맺었으나, 이 협정은 10개월 만에 깨지고 國共은 제2차 내전으로 돌입한다. 사실 항일전쟁 기간, 중공은 “7분 自強, 2분 應府, 1분 抗日”이라는 방침아래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 진력했고, 그 결과 최초 5만 명으로 출발했던 八路軍·新四軍은 해방전쟁 종료 시 120만 명으로 늘어났다.

1948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국공내전 양상은 解放軍 공세, 國府軍 수세로 바뀌었다. 이 시기 해방군은 遼瀋戰役과 淮海戰役, 平津戰役 등 3대 전역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長江 이북을 해방함과 아울러 남북을 연결하는 전략요충지를 점령하였다. 이어 계속 공세를 취하여 1949년 5월에 국민정부의 수도 南京을 접수했다.

1949년 10월 1일, 대륙에는 공산당 정권인 “中華人民共和國(이하 中國)”이 들어섰고, 10월 19일 인민혁명군사위원회가 성립되고, 이 위원회는 1950년 4월 종전의 4개 야전군 대신 전국을 西北, 西南, 中南, 華東, 華北, 東北 등 6대군구로 재편하였다.(『中國人民解放軍大典』1997: 831)

중국은 1950년 3월에 新疆, 4월에 해남도와 주강하구에 위치한 만산군도 등을 접수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대륙을 완전 수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만은 물론이고 항주만 일대의 주산군도는 국민정부의 영향 아래 있었고, 대륙 곳곳에도 國府軍의 잔여세력이 解放軍과 전투 중에 있었으며, 티베트도 영국·인도의 지지아래 독립을 선포한 상태로 있었다.

2.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대한 중국의 간여

중국의 6·25전쟁 참전 명목은 “抗美援朝, 保家衛國(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하며,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 이하 抗美援朝)”, 즉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脣亡齒寒”的 논리였다. 1949년 3월 초, 김일성은 박현영을 대동하고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무력에 의한 조선통일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남침불가를 지시하면서도 김일성에게 4천만 달러어치의 무기 및 장비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해서 인민군의 무력 증강을 도왔다.²⁾(『서울신문』, 1995. 5.15)

북한은 中共과도 남침방안을 협의했다. 1949년 4월 28일, 북한노동당 대표 김일이 毛澤東 · 朱德 · 周恩來 · 高崗 등과 만나 해방군 내 조선인 사단의 인민군 편입문제를 확정했고 아울러 남침 시 중공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毛澤東은 “민족전쟁”,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동의했다.”(『軍史 제71호』, 2009:11)

1949년 12월, 毛澤東은 국민정부와 소련사이에 맺었던 『中蘇友好同盟條約』을 폐기하고 새로운 『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을 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이 기간에 스탈린과 김일성이 제기한 남침전쟁 문제를 토론하였다.

스탈린은 毛澤東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방위력 증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원조, 할 수 있는 원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軍史 제71호』, 2009:11) 그러나 모택동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적화통일”보다는 “臺灣해방”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스탈린에게 臺灣해방에 필요한 해 · 공군의 무기장비와 기술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1950년 4월 초, 김일성은 박현영 등을 대동하고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남북한 통일 방법, 북한 경제개발의 전망, 그리고 “조선노동당” 내부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통일과업을 위한

2) 세 가지 이유: ①人民軍의 군사력은 아직 속전속결로 남한군을 손쉽게 제압할 정도가 아니다. ②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③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38 선 분할에 관한 협정도 여전히 유효하다.

선제 남침”을 허락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중국과도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김일성의 남침 결정에 “중국의 의견을 타진한다”는 형식을 빌려 중국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고도의 정치적 술책이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과 박현영 일행은 5월 13일 北京으로 가서 毛澤東'周恩來를 비롯한 중국수뇌들에게 스탈린과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24)

毛澤東은 신중했다. 김일성이 주중북한대사 이주연을 통해 毛澤東과 회담을 요청했을 때 毛澤東은 “조선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비밀방문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식방문으로 하라고 요구했다.(『서울신문』, 1995.5.28) 5월 13일, 毛澤東은 김일성·박현영과 1차 회담을 끝내고 바로 소련대사 로신을 통하여 스탈린에게 전쟁과 관련한 의견을 구했고 스탈린의 해명을 듣고 난 뒤에야, 5월 15일 제2차 회담을 열어 무력남침에 대해 상세한 입장을 교환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의 남침과 유사시 해방군의 북한지원을 약속했다.(『서울신문』, 1995.5.29)

사실 毛澤東은 김일성의 무력남침에 대해 전쟁지원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소극적이었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중국은 전력을 기울여 臺灣과 티베트문제를 해결할 시기였다. 더군다나 臺灣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된 것은 중국에게는 호기였다. 비록 김일성이 남침을 하더라도 애치슨라인이 선포되어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호언했으나, 모택동은 역시 미군의 개입과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일본군의 개입을 특히 우려하였다. 아마도 모택동은 북한과의 “脣齒關係”와 『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소극적이나마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통일전쟁 계획”이 모택동의 심사를 건드린 것만은 확실하다. 남침전쟁계획이 자신을 소외한 채 김일성과 스탈린 사이에 진행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전쟁개시의 결정권을 자신에게 넘긴 것 때문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이었다. 즉 소외에서 갑자기 캐스팅보트권자로 되었다.(『軍史 제71호』, 2009:15)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중국은 “조선통일전쟁” 결정에 캐스팅보트로 참가하게 되었다.

3. 중공군의 부대이동과 배치, 참전결정 과정

6·25전쟁초기, 기습을 달성한 “조선인민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진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움직임도 빨 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미공군기가 바로 북한 전역을 폭격하고 7월에 들어서면서 미 지상군이 투입되고 유엔군사령부가 구성되었다. 미국은 애치슨라인을 수정하고, 6월 28일 트루먼대통령은 제7함대의 臺灣海峽 진주를 명령했다. 당시 중국의 해군으로 미제7함대의 벽을 넘어 臺灣을 공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8월, 전선은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되었다. 毛澤東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전쟁은 속결전에서 지구전으로, 내전에서 국제전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1)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초기 군사적 대응

7월 초부터 中共中央軍事委員會(이하 軍委)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원래의 中南軍區(제4야전군) 소속 일부부대를 東北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중국의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당시 解放軍의 전국적 배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中國人民解放軍大典』1997: 603-835)

1948년 11월 1일, 毛澤東은 잡다한 해방군을 정돈하고는 西北野戰軍, 中原野戰軍, 華東野戰軍, 東北野戰軍 등 4개 야전군으로 재편하였다. 1949년에 들어서면서 각 야전군이 長江 이남으로 진출하여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자, 軍委는 야전군의 지역명칭을 없애고, 서북야전군을 제1야전군, 중원야전군을 제2야전군, 화동야전군을 제3야전군, 동북야전군

을 제4야전군으로 개칭하였고,³⁾ 毛澤東과 軍委가 직접 장악하는 “華北野戰軍”을 만들었다.

1950년 초 대륙의 대부분이 평정되자 6·25전쟁 발발 전에 軍委는 야전군제를 폐지하고 다시 6대軍區체제로 환원하였고, 1950년 7월 13일, 毛澤東은 유사시를 대비해 “東北邊防軍” 창설을 지시했다.(『周恩來傳』, 1997:51)

① 제13병단의 제 38·39·40과 치치하얼의 제42군, 포병 제1·2·8사단 및 고사포, 공병, 運輸兵 일부 부대 등 총 25만 5천 병력으로 東北邊防軍 창설. 제40군은 7월 10일부터 廣州를 출발 7월 24일까지 安東, 제38·39군은 7월 15일 信陽·灤河를 출발 8월 1일까지 遼陽·鳳城. 제42군은 7월 30일 치치하얼을 출발 8월 1일 通化·輯安에 도착, ② 粟裕를 동북변방군사령원 겸 정치위원, 肖勁光을 부사령원, 肖華를 부정치위원으로 임명, ③ 제15병단사령부를 기초로 제13병단 사령부를 편성하며, 鄧華를 사령원, 賴傳珠를 정치위원, 解方을 참모장으로 임명.

당시 동북지역에는 제4야전군의 남하로 단지 제42군만 남았고, 그 부대도 北滿洲에서 농경지 개간에 종사하고 있어, 일단 유사시 대응할 병력이 부족했다. 7월 22일, 粟裕·肖勁光·肖華가 사정상 부임하기 어려워지자 동북변방군을 우선 동북군구사령원 高崗의 지휘 하에 두도록 했다.

毛澤東은 왜 중남군구 예하의 제13병단을 지목하였는가? 毛澤東은 남

3) 제1야전군: 제1·2병단에 6개 군, 제2야전군: 제3·4·5병단에 10개 군과 1개 특종병縱隊, 제3야전군: 제 7·8·9·10병단에 16개 군과 1개 특종병縱隊 및 화동해군, 제4야전군: 제12·13·14·15병단에 12개 군과 1개 특종병사령부, 1개 철도병사령부 및 兩廣縱隊, 화북야전군: 제18·19·20병단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방이 정돈되자 6·25발발 전인 1950년 5월 말과 6월 초, 상대적으로 현존 전력이 적은 華北과 東北에 병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서북군구의 제19병단을 蘭州와 西安 사이의 寶鶴와 天水, 平涼에 배치하고, 중남군구의 제13병단을 河南의 信陽과 漢水 등 교통의 요지에 배치함으로써 해방군의 전략예비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군사연구 제122집』, 2007:143)

東北邊防軍 편성(『抗美援朝戰爭 I』, 2000:67)

부 대		편제 인원(명)
제 13 병 단	병단사령부	1,400
	제38군	49,015
	제39군	57,907
	제40군	50,916
	소 계	159,238
	제 4 2 군	47,857
포 병 사 령 부	포병사령부	1,000
	포병 제1사단	9,487
	포병 제2사단	9,223
	포병 제8사단	9,499
	고사포병 4개단	8,138
	소 계	37,353
1개 기병단		1,100
제6공병단		2,200
3개 운수병단		3,000
합 계		250,748

제19병단과 제13병단 중에서 지리적 위치로 보아 동북으로 가장 빠르

게 이동할 수 있는 병단은 결국 제13병단이었다. 또 제13병단에는 동북 군 출신이 많았고, 遼瀋戰役과 平津戰役을 통해 투항한 국부군을 흡수 하였기 때문에 동북지역의 기후와 지리에 익숙해 있었다.(『抗美援朝戰爭回憶』, 1990:12) 결과를 놓고 볼 때 毛澤東을 비롯한 중국수뇌부의 이 조치는 상당히 기민했으며, 사전 준비로 적절한 훈련과 필요한 장비를 보충 받아 “中國人民志願軍” 개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 8월 상순까지 제13병단 거의 전부대가 다음 집결지로 모두 집결했다.

• 제13병단사령부 安東

- 제38군 鐵嶺 일대
- 제39군 遼陽 일대
- 제40군 安東 일대
- 제42군 通化 일대
- 포병사령부 凤城, 本溪, 通化 일대
- 고사포병단 安東 일대

1950년 8월 11일, 鄧華는 濱陽에서 제13병단 제1차 군사회의를 소집해서, “8월까지 전선공작과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在志願軍司令部的歲月里』, 1998:27) 비록 제13병단이 정해진 시간 내에 동북에 전개하긴 했으나 문제점이 많았다. 첫째는 동북으로 이동하자 “귀향”으로 착각한 장병들은 정신적으로 전쟁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또 무기·장비와 간부들의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물자가 보족했고 수송능력이 떨어졌으며, 둔전에 종사하면서 훈련을 하지 않아 부대의 전기·전술이 숙달되지 않았다.(『在志願軍司令部的歲月里』, 1998:27)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8월 중순 이후부터 한반도의 정세는 낙관불허였다. 비록 한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일각에 몰려 있었으나 북한군의 공세는 한계에 도달해, 중국수뇌부는 “조선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73) 이에 軍委는 東北邊防軍의 제2선과 제3선 부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9월 6일, 軍委는 邊防軍의 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中南軍區에서 제50군을 차출하여 邊防軍 전투서열에 편입시켰다. 이와 동시에 華東軍區의 제9병단을 차출하여 山東-津浦線(天津-江蘇浦口 철로)에 위치시켜 邊防軍 제2선 부대, 제19병단을 차출하여 隣海線(江蘇連雲港-甘肅蘭州 철로)에 위치시켜 제3선부대로 하면서 제9병단과 호응하도록 조치했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73)

중국은 “邊防軍”이 “志願軍”으로 편성되어 “조선”으로 출동까지 제2선 및 제3선부대의 배비를 완성하였다. 제1선은 5개 군 15개 사단, 제2선은 3개 군 12개 사단, 제3선 3개 군 9개 사단으로, 전체 11개 軍 36개 師, 특종병, 후근부대 등 모두 70만 명이었다. (『抗美援朝戰爭史 I』, 2000:74~75) 제9병단은 10월 1일부터 북상하기 시작하여, 10월 하순에 제27군은 泰安, 제20군은 兖州, 병단사령부는 曲阜, 제26군은 滕縣에 집결했다. 같은 시기에 제19병단도 사령부를 西安, 제63군을 三原, 제64군을 寶鷄, 제65군을 寧夏에 집결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을 위한 조치는 주도면밀했다고 할 수 있다.

2) 중공군 참전결정 과정

중국수뇌부가 “조선출병”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다고 중국자료는 설명하나, 필자는 우선 9월 말까지 “조선출병”을 위한 재반조치를 갖춘 가운데 중국수뇌부가 참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명분을 찾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9월 18일, 김일성은 북한주재 중국대사 倪志亮을 만나 인천상륙작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미군의 인천상륙부대는 1개 사단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응한 인민군은 신편 2개 연대로 작전경험이 없어 전투력이 약한 상태에서 중원부대가 적시에 도착하지 못해 상륙 미군은 이미 서울에 접근하고 있다. 인민군은 장기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새로운 10~15개 사단 동원에 착수하고 있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123)

倪志亮은 이를 周恩來에게 보고하자, 周恩來는 “지구전으로 전환하라”는 조언을 倪志亮을 통해 김일성에게 전달토록 하고, 9월 18일, 소련대사 로신과 소련군사고문 커토프장군을 만나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중국은 조선전장의 군사정세에 대한 지식이 아주 적다”면서 중국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킨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124)

사실 당시 김일성은 중국을 상대적으로 홀시했다. 중국이 7월 초부터 “東北邊防軍”을 창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7월 12일에야 부총참모장 이상조에게 군수지원을 요청하는 김일성의 서신을 가지고 중국수뇌부를 찾도록 했다. 북한은 8월과 9월에 각각 한차례씩 북한대표단을 北京으로 보내 전쟁 상황을 보고하고 제반 문제를 협의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김일성은 박일우를 안동으로 보내 변방군 수뇌부와 대책을 협의토록 했다.(『抗美援朝戰爭回憶』, 1990:20) 북한군의 패주가 계속되면서 그나마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중·북한수뇌부 사이의 연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조선출병”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중국은 소련에게 한국전쟁에 관한 정보공유를 요청했다.(『서울신문』, 1995. 6.16)

김일성은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탈환이 임박했을 때까지도 중국의 파병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9월 21일 소집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박현영·김두봉·박일우 등이 중국지원을 찬성한 것과 달리 김일성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은 중국에 군사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중공군이 한반도에 발을 붙이면 중공이 육성한 연안파들이 득세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김일성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조선일보』, 2010. 5.17)

9월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회의는 “…인민군은 미군이 삼팔선을 넘는 것을 저지할 힘이 없으며…북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와 군사기지가 될 것이다. 이런 국면을 면하기 위해서는 소련과 중국에게 직접 군사원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결정했다.(『抗美援朝戰爭史』, 2000:146) 9월 30일, 김일성은 박현영과 연명으로 된 편지를 소련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보냈다.

“…만약 적이 우리에게 우리의 예정된 조치를 실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우리의 심각한 국면을 이용하여 북조선으로 진격한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적을 저지할 힘이 없습니다…우리는 부득불 당신에게 특별 원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이 38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소련의 직접적 군사원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을 비롯한 여러 인민민주국가들로 국제지원군을 조직해 지원해주기 바랍니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146)

10월 1일, 이 편지를 받은 스탈린은 북한에 대한 가장 적합한 군사원조 방식은 “국제지원부대”를 창설하는 것이며 이 부대는 중국군대로 조직하고 이를 중국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147)

당일 스탈린은 중국 주재 소련대사를 통해 毛澤東과 周恩來에게 중국군대의 조선출병을 요청했다.

“…당신들이 만약 부대를 출병하여 조선을 도울 생각이라면, 최소 5~6 개 사단을 38 선으로 신속히 출동시켜야 조선동지들이 당신들 부대의 엄호 하에 38 선 이북에서 후비역량을 조직할 수 있다. 중국군대는 지원군의 신분으로 할 수 있다. 당연히 중국 지휘요원이 이 부대를 지휘

한다. . . ”

그날 밤, 스탈린은 북한주재 소련대사를 통하여 김일성과 박현영에게 네 가지를 주문했다. 그중 4번째 항은 다음과 같다.

“…소련의 직접 군사원조를 해달라는 요구에 관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인민지원부대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중국동지들과 의논해야 한다.”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은 10월 1일 밤 중국대사 倪志亮과 무관 柴成文을 불러 “압록강 변에 집결해 있는 제13병단의 도강작전”을 정식으로 요청했다.(『板門店談判』, 1992:71) 이를 미루어 볼 때, 김일성은 스탈린의 “소련군 직접 출병 대신 인민지원부대를 조직하고 이를 위해 중국동지와 의논”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중국에게 조선출병을 간절히 요구하지 않았을 런지도 모른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일성은 10월 3일 박일우에게 김일성·박현영의 서신을 휴대하고 毛澤東을 찾아가 이를 직접 건네도록 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만약 적이 계속 38 선 이북으로 공격한다면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는 이 위급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에게 원조를 특별히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적이 38 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中國人民解放軍이 직접 출동해서 우리군의 작전을 원조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 ”

중국이 북한에 출병한다는 의지와 입장은 미 제7함대의 臺灣海峽 진주로 臺灣 공략이 좌절되고 東北邊防軍을 조직하면서부터 일관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조선에 출병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 먼저 대외적으로 “적에게 경고”할 필요성을 가졌다. 그래서 9월 30일 周恩來는 이와 관련된 연설을 했다.

“중국인민은 평화를 애호한다. 그러나 평화를 보위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에 대항하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중국인민은 외국의 침략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가 자신의 인접에 침략을 자행하도록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내버려둘 수 없다.…"중국은 "내버려둘 수 없다[不能置之不理]"라는 표현을 써, 유엔군이 38 선을 넘으면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950년 10월 1일 정권수립 1주년 이날 스탈린으로부터 "인민지원부대 조직" 요청과 倪志亮으로부터 김일성의 "조선출병" 요청 보고가 있었다. 사실 중국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조선인민지원, 대만해방연기"라는 방침을 설정하고 "조선출병"을 준비했었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151) 중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상순부터 동북변방군을 조직해서 군사적 배비를 갖췄다. 둘째, 8월 상순에 毛澤東과 周恩來는 정치국회의에서 지원군의 형식과 북한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이를 高崗을 통해 변방군 고급 간부들에 전달되도록 했다.

셋째, 8월 27일 毛澤東은 서북군구 사령원 彭德懷에게 12개 군을 기동할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와 아울러, 9월 19일 변방군의 조선출병 때를 대비해 武官 5명을 선발하여 북한에 보냈다. 넷째, 9월 5일 毛澤東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조선원조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각 부문이 지원할 문제를 토론하라고 지시했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151-153)

10월 2일, 毛澤東은 邊防軍司令員 鄧華에게 변방군의 출동준비를 갖추라는 전문을 보내고, 아울러 스탈린에게 조선출병에 대한 입장을 보고 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남만주에 전개된 12개 사단을 10월 15일 부로 북조선의 적당한 지역에 진출하여 38 선 이북의 적에 대해 작전 하며…적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군을 섬멸할 자신이 없습니다. …상술한 12개 사단 외에 長江 이남과 陝甘지역에서 24개 사단을 이동시켜 臨海, 津浦, 北寧線에 위치시켜 조선을 원조하는 제2 및 제3선 병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抗美援朝戰爭史 I』,

2000:154)

10월 4일, 毛澤東은 정치국회의를 소집해서 “조선출병”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 중에 “조선출병” 반대 의견도 나왔다.⁴⁾ 그러나 모택동의 “脣亡齒寒”的 논리가 모든 반대의견을 잠재웠고 周恩來가 적극 동조했으며, 10월 4일 오후 西安에서 北京으로 와 정치국회의에 참석했던 彭德懷도 “조선출병”을 옹호했다.

10월 5일, 정치국회의는 “抗美援朝, 保家衛國”을 결정하면서 “中國人民志願軍(이하 志願軍)” 조직과 彭德懷를 統帥로 결정했다. 10월 8일, 毛澤東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출병명령”을 발하면서 동시에 倪志亮에게 이 내용을 김일성에게 전달도록 했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161)⁵⁾

동일, 周恩來는 스탈린에게 “조선출병”을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 특히 공군지원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다. 그는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나온 “반대론 또는 신중론”을 제시하면서 스탈린의 의중을 떠 보았다.

“소련이 공군지원을 동의한다면 중국은 기꺼이 출전할 것이며, 또 무기와 장비 그리고 육군 경무기의 설계도를 지원해주기 바란다.”(『抗美援朝戰爭史 I』, 2000:165)

스탈린은 무기장비와 제조 기술의 제공에는 동의했으나 공군지원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 2개월 안에는 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곤란하다면 출병하지 않아도 된다. 북조선이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역시 사회주의이며 중국은 여전히 존재한다.”(『周恩來年譜(1949-1976)』, 1997:61) 스탈린의 답변은 “공중지원 없는 작전”을 의미

4) 반대 이유: ①전쟁 상흔 미치유 ②토지개혁 미완성 ③국내전쟁 미종결 ④군대장비와 훈련 불충분 ⑤일부 軍民 厥戰정서(『彭德懷軍事文選』, 1988: 320~322)

5) 倪志亮이 김일성에게 전달한 내용: ①현재 상황에 의거, 志願軍을 조선 경내로 파견, 당신들을 돋기로 결정, ②彭德懷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및 정치위원으로 하며, ③지원군의 후방근무지원 및 기타 만주 경내의 조선을 원조하는 업무는 高崗동지 책임 ④당신은 즉시 박일우를 潘陽으로 파견하여 彭德懷와 만나 지원군의 조선 경내 작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상의토록 하라.”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毛澤東은 마지막까지 참전여부를 망설여, 10월 12일 조선출동을 잠정 중단시키기 까지 했다고 하나, 이때 彭德懷는 志願軍이 10월 15일 출동해서 늦어도 10월 22일까지는 “조선북부”의 예정된 집결지를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毛澤東도 이를 승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 제스처라 볼 수 있다.

또 한 번의 정치적 제스처는 10월 13일 毛澤東이 彭德懷와 高崗까지 北京으로 불러온 가운데 긴급 정치국회의를 열어 “조선출병”문제를 다시 토론하고는 “참전”한다는 최종 결정을 周恩來에게 통보한 후 차후의 문제를 소련과 협상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周恩來는 며칠을 더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소련정부로부터 “신용차관 형식의 군사장비는 제공하겠으나, 미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공군 부대는 압록강 이북에 한정하며, 2개월 또는 2개월 반 후에도 조선 경내에서 지원군 작전을 엄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돌아왔다.(『周恩來年譜(1949-1976)』, 1997:86)

III. 6·25전쟁에서 중공군의 역할

1. 중공군의 조선출병과 초기 부대배치

10월 14일, 軍委는 10월 19일부로 조선출병을 결정했다. 10월 15일 03:00시, 東北軍區와 제13병단은 예하부대에게 “10월 20일 이전까지 전부대가 輯安·長甸河口·安東 일대에 집결하여 은폐하고 도강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집결과 도강지점은 ①제40군은 安東, ②제39군은 長甸河口-寬甸, ③제42군은 渾江口, ④제38군은 輯安-羊魚頭, ⑤포병사령부 및 포병 제1·2

사단은 安東, 포병 제8사단은 輯安이었다.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도강 제1제대인 제40군과 제42군, 제39군 제117사단, 포병 제1·2사단 전부가 輯安, 長甸河口, 安東 등 3개 지점에 집결 완료했다. 이 기간에 각 군에서 파견한 정찰대가 16일 저녁 이미 압록강을 건너 강 남안 북한 지역 30여km까지 진출했다.

10월 18일 21:00시, 毛澤東은 제13병단에게 “19일 저녁 安東과 輯安에서 압록강 도하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10월 19일 12:00시, 鄧華는 예하부대에게 조선 입경 후 부대배치에 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抗美援朝戰爭史Ⅱ』, 2000:1)

“兵團은 구성-태천-구장-덕천-영원-오로리를 연하는 선에서 기본 방어선을 편성하고 먼저 3개 군을 전개하고, 1개 군을 기동예비로 편성한다. 제39군은 압록강-구룡강지구 방어, 주로 영산, 구성, 태천 일선지구를 통제한다. 제40군은 구룡강-교관리지구 방어, 주로 영변, 구장, 영원 일선지구를 통제한다. 제42군은 교관리-오로리 이동지구 방어, 주로 사창리, 오로리 일선지구 통제한다. 제38군은 강계와 輯安일대 집결하여 기동예비로 한다. 포병은 온정과 북진, 희천지구에 집결한다. 兵團司令部는 희천부근에 위치한다.”

중공군은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작전을 해야 했다. 방법은 야간작전 위주였다. 모든 작전 요소는 주간에 일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압록강을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輯安과 長甸河口, 安東 등 3개소의 철로에는 침목을 보강하여 인마와 차량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長甸河口에 가교를 설치했다. 수심이 얕은 곳은 수면교(수면과 같은 높이), 깊은 곳은 부교를 설치했다. 부교는 저녁 무렵에 설치하여 날이 밝기 전에 철거했다.

중공군은 모자와 견장의 “붉은 별” 표지를 제거했고, 연대 이상 간부들에게는 “조선인민군” 군복을 지급했다. 사단 이상 간부들은 인민군 장군복, 연대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영관복을 착용토록 했다. 언뜻 보면

완전한 “조선인민군”이었다.

2. “中國人民志願軍司令部” 구성과 제1·2차 전역

1) 彭德懷, 김일성과 만나다.

10월 19일 상오, 彭德懷는 박일우의 안내로 安東에서 자동차로 압록강 철교를 건넜고, 박현영이 철교남단에서 彭德懷를 마중했다. 이때 박현영은 철수 중인 김일성과 잠시 연락되지 않았으나 다행히 중국대사관 요원을 만나 김일성의 소재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板門店談判』, 1992: 83-85)

한편, 10월 19일 밤, 柴成文은 彭德懷로부터 김일성과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일 아침 평안남도 덕천 터널의 열차 속에 있는 김일성을 찾아 彭德懷의 조선입경과 면담요망 사항을 통보했다.

이때는 이미 평양 남쪽이 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 터널도 안전하지 못했다. 20일 저녁 김일성과 柴成文은 덕천을 떠나 평안북도의 대유동의 금광 동굴로 이동했다. 도착한 시각은 10월 21일 2시 경이었다.

10월 21일 09:00시, 彭德懷는 대유동에서 김일성과 만났다.

彭德懷: …제1제대 참전은 4개 군 12개 보병사단, 3개 포병사단 약 26만 명이다. 후속하는 병력은 2개 군 약 8만 명으로 조만간 조선에 들어올 것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중공중앙은 20여개 사단을 동원하여 제2 및 제3제대로 참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체 병력은 60여만 명에 달한다. …우리는 인민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여 가능한 적의 전진을 지연시켜 시간을 획득하기를 희망한다. 현재 당신의 손안에서 작전 할 수 있는 병력은 얼마인가?

김일성: 작전 가능한 병력은 4개 사단이 안 된다. 1개 노동자연대[工人團]와 1개 탱크연대가 장진부근, 1개 사단은 덕천·영원 이북, 1개 사단은 숙천, 1개 탱크사단은 박천에서 전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다.

당시 북한군은 크게 중조국경지구에 배치된 부대, 중국동북지구에서 정편하고 있는 부대, 38 선 부근의 패잔병으로 구성된 제2전선부대가 있었으며, 중조국경지구에 배치된 3개 사단 병력으로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 하에서, 중공군 26만 명은 김일성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2) "中國人民志願軍司令部" 구성과 초기 중공군 전투서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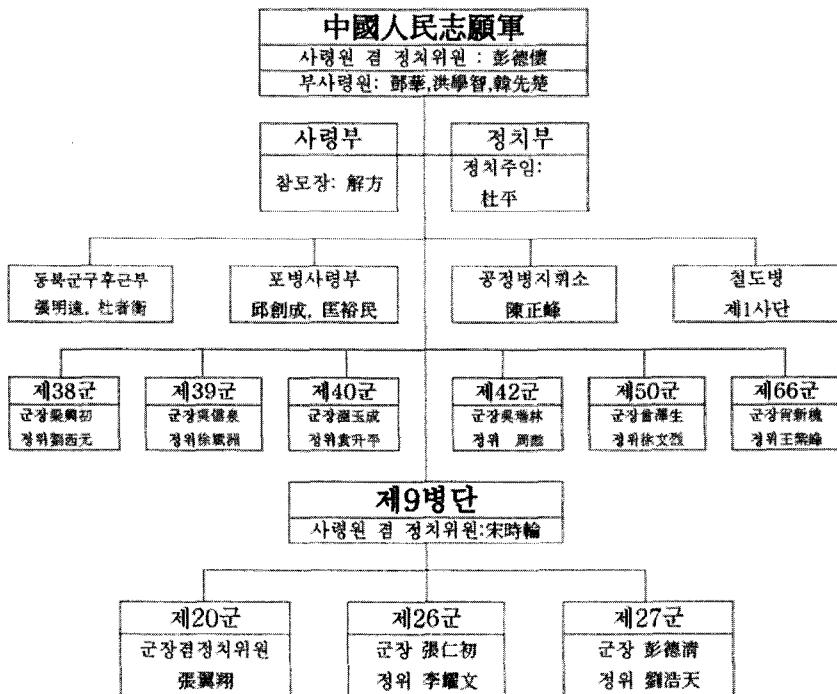
10월 24일, 彭德懷는 평안북도 창성군 대유동에서 제13병단사령부와 합류한 후 제13병단사령부를 "中國人民志願軍司令部"로 개조하고, 鄧華를 부사령원 겸 부정치위원, 洪學智와 韓先楚를 부사령원, 解方을 참모장으로 임명했다. "志願軍"과 "인민군" 사이의 작전협조를 위해 북한에서 박일우를 지원군사령부에 상주시키고 부사령원과 부정치위원, 黨委부서기를 겸하도록 했다.(『抗美援朝戰爭史Ⅱ』, 2000:15)

彭德懷는 제2제대인 제9병단이 山東 남부에 집결하고 있던 관계로 투입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天津에 주둔하고 있는 제66군을 우선 투입하여 신의주, 구성, 정주 방향에 보강하고, 제50군을 미 제10군단이 공격해오는 황초령, 장진호 방향으로 투입 제42군을 증원하도록 軍委에 건의했다.

중공군은 11월에 접어들면서 원래의 제13병단에 추가하여 제66군, 50군과 제9병단 예하 군, 포병까지 합쳐 총 9개 군과 포병, 공병, 기타 후방병참 등으로 전투능력은 대폭 증가되었다.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한국전쟁 초기 중공군 전투서열(1950년 10~12월)



3) 제1~2차 전역과 그 결과

1950년 10월 25일 08:30분경, 제40군 120사단 360연대는 운산에서 북진하는 국군 제1사단 15연대와 조우하였고, 10:00시경 제40군 118사단은 양수동에서 국군 제6사단 2연대와 조우하였다.(『抗美援朝戰爭史 II』, 2000:21) 이것은 서전에 불과했다. 중공군의 대규모 조직적인 전투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전역에서 중공군은 국군 제6사단을 괴멸시키고, 국군 제1사단과 8사단, 미 기병 제1사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유엔군을 일시 청천강 이남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전국(戰局)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북한군에게 철수와 재편

성하는데 시간을 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과의 작전에 관한 초보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 차기 작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중공군은 제1차 전역에서 5일간 작전을 한 후 바로 작전 한계점에 도달하여 전선을 조정하면서 제2차 전역을 준비했다.

먼저 부대배치를 조정하고 정찰을 강화했다. 서에서부터 동으로, 제50군은 선천 및 용암포 방향, 제66군은 정주 및 안주·박천 방향, 제39군은 운전동·안주 및 해안 방향, 제40군은 구장·군우리·안주방향, 제38군은 덕천·원리·개천·순천·안주 방향, 제42군은 장진호 이남 황초령에서 함흥·신흥에서 흥원 방향으로 배치하고 책임지역에 대한 정찰을 강화했다.

둘째, 수송문제 해결이었다. 북한의 철로는 기본적으로 파괴되어 철로 수송이 불가능하고, 중국 내에 동원할 수 있는 차량도 한정되었다. 周恩來는 소련정부와 협조하여 滿洲里에서 大連의 소련기지로 이동할 예정인 소련군 수송 차량 1,000량을 빌려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조치를 취했다.

셋째, “지원군사령부”는 11월 7일부로 제9병단을 輯安·臨江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의 동부전선으로 기동시켰다. 제9병단은 총 3개 군, 12개 사단, 15만 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부전선에 총 6개 군 18개 사단 23만 여명을 합하여 제2차 전역에 투입된 중공군은 모두 9개 군 30개 사단과 각종 지원부대, 38만여 명이었다.

11월 25일, 중공군은 제2차 전역을 실시하던 그날 미공군기가 “지원군사령부”가 있는 대유동을 폭격했고, 이 폭격에서 毛澤東의 장남 毛岸英이 전사했다. 그리고 12월 24일까지 실시된 이 전역에서 중공군은 기본적으로 38 선 이북을 회복해서 전쟁을 원점으로 되돌렸으며, 미국인들을 경악시키고 공포심을 자아내게 했다. 중공군은 또 현대화된 장비로 무장한 미군과의 작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반면 미 공군에 대한 공

포심도 가지게 되었다.

미 공군은 제9병단의 동부전선 이동을 방해했고, 군수물자의 압록강 도강을 차단했으며, 중공군의 행동을 야간으로 한정시키고 일체의 보온 활동을 할 수 없게 하여 30%가 동상에 걸리는 비전투손실을 입혔다. (『鴨綠江告訴你』, 1994: 83)

3. 중-조 연합사령부 구성과 제3·4차 전역

1) 중-조 연합사령부 구성

중공군 제1차 전역 시까지, 북한의 박일우가 “지원군사령부”에 파견되어 부사령원 겸 부정치위원으로 연락임무를 맡았으나, 지원군과 인민군 사이에는 통일된 지휘기구가 없었다. 이로 인해 서로 오인사격 하는 일이 발생했고, 작전의 중복과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군수지원과 수송에서도 혼란을 초래했다. 따라서 지휘의 통일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제1차 전역 종결 후, 彭德懷는 김일성에게 “지원군총사령부”가 가능한 한 “인민군총참모부”와 같은 곳에 위치하여 서로 협조하고 작전을 통일시키는 문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군사와 정무 모두를 장악하고 있어 지원군총사령부와 같이 있는 데는 난색을 표했다. 11월 15일, 周恩來의 주선으로 高崗·彭德懷, 김일성, 슈티코프가 한 자리에 모여 작전지휘와 군정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상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자 이 문제를 스탈린에게 넘겼다.

12월 3일, 제2차 전역이 종결될 즈음 김일성은 북경으로 가서 毛澤東과 周恩來·劉少奇를 만나, “스탈린동지가 조·중 군대 지휘통일에 동의했고, 조선노동당정치국도 지원군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중국동지가 正, 조선동지가 副로 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抗美援朝戰爭史

II』, 2000:168) 이에 따라 쌍방은 “중조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모든 작전 범위와 전선의 일체 활동은 聯合司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후방동원·훈련·군정·경비 등은 “조선정부”的 직접 관할로 두나 聯合司는 요구와 견의를 할 수 있으며, 철로·운수·수리는 모두 聯合司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또 聯合司는 “지원군사령부”와 “인민군참모부”를 두며 같이 근무하고, 彭德懷를 사령원 겸 정치위원, 북한의 김옹을 부사령원, 박일우를 부정치위원으로 했다. 12월 상순에 “중국인민지원군·조선인민군연합사령부”가 정식으로 발족했으며, 제3차 전역부터 이 聯合司가 지휘했다.(『抗美援朝戰爭史II』, 2000:169)

2) 중공군 제3~4차 전역과 결과

중공군이 38 선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을 즈음,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아프리카 13개국은 한국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중국은 12월 7일 중국주재 인도대사를 통하여 이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미국이 구체적 협상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 계속 공격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지사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 彭德懷는 1·2차 전역에서 누적된 전력의 피로 때문에 당장의 군사적 행동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원군이 일정 기간 휴식과 보급을 받은 후 이듬해 새로운 전역을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抗美援朝戰爭回憶』, 1990:151-152) 그러나 중공중앙은 12월 13일 “반드시 38 선을 넘어 다시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彭德懷는 제3차 전역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2월 22일, 彭德懷는 제3차 전역을 위한 기동계획을 하달했다.

“제42·66군과 포병 1개단을 좌종대로 하여 춘천 서북지점의 마평리-영평지구의 한국군 제2·5사단을 공격 섬멸한 후, 양구와 인제의 인민군 제2·5군단과 협조하여 가평·청평 방향으로 공격, 전과 확대 후 춘천과 서울의 교통을 절단한다. 제38·39·40·50군과 포병 제1·8사단의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포병 6개단을 우종대로 하여 영평에서부터 고랑포 지구로 집중 공격하여 한국군 제1·6사단을 섬멸한 후, 포천 지향리, 구암리를 목표로 전 과학대 한다. 인민군 제1군단은 문산지구에서 양공작전을 실시하여 지원군의 작전과 배합한다.”(『抗美援朝戰爭史Ⅱ』, 2000:174)

중공군의 제3차 전역은 서부전선부대를 주공으로 한국군 섬멸에 목표를 두었다. 동원된 부대는 지원군 6개 군과 인민군 3개 군단이었다.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은 38 선 부근의 유엔군 저지선을 향하여 일제히 진격했다.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이 있는 기간에 야간공격만 했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은 서울을 다시 점령했고, 1월 8일까지 유엔군과 한국군을 평택-안성-제천-삼척선으로 밀어붙였다.

외형적인 성과에 비해서 중공군이 당면한 어려움은 아주 심각했다. 먼저 유엔군의 주력을 섬멸하지 못했고, 대신 보급선이 연장되고 추위로 인한 비전투 손실이 심대했으나 병력보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전투피로가 극심하여 더 이상 작전을 계속할 수 없었다.⁶⁾ 彭德懷는 1월 8일 제3차 전역 종결을 선언하고 부대에 대한 휴식과 정비를 하면서 37°선 방어에 들어가도록 했다.

“추격정지에 대해서 소련고문단과 북한지도부 사이에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대 내에는 ‘북에서 남까지 죽 밀어 치약 한통 다 쓸 무렵 이겨 돌아가자’는 말이 유행했고, 이와 동시에 소련군사고문단과 조선동지들도 한꺼번에 미국을 해외로 쫓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彭德懷에게 ‘이겼는데도 왜 추격하지 않는가? 세계에서 어디 이런 전쟁 방법이 있느냐?’고 질책했다.”(『抗美援朝戰爭回

6) 1951년 1월 8일, 志願軍 黨委가 軍委와 高崗에게 보고한 내용: 2개월 여 전투에서 서부전선 6개 군이 3개 전역에서 傷亡한 인원은 3만 여명에 달하며, 동상과 질병, 도망자는 약 2~2.5만여 명. 동부전선의 제9병단의 상망과 동상, 질병, 도망자는 약 4만 명. 현재 정황으로 전투단위의 병력부족과 급양차질, 체력저하로 정비 보충과 운수 급양을 개선하지 않고는 계속 작전 불가.

憶』, 1990:110)

1951년 1월 25~29일, 聯合司 고급간부연석회의가 군자리 지원군총사령부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지원군방면에서는 사령부·병단·군 수뇌, 앞으로 참전할 제19병단의 수뇌, 高崗, 제4병단의 사령원 陳賡, 인민군방면에서는 김옹·박일우 및 각 군단장과 김일성·박두봉·박현영 등이 참가했다. 그런데 제3차 전역을 총결산하고 휴식과 정비를 명하는 회의는 彭德懷의 의지와는 달리 1월 25일 유엔군이 반격을 실시하자 제4차 전역을 위한 총동원을 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당시 서울을 점령한 중공군이 10일이 넘도록 재공격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 제8군사령관 Ridgway장군은 1월 15일 연대규모의 Wolf Hound작전, 25일에는 사단규모의 Thunderbolt작전으로 적진 깊숙이 위력수색을 실시하였으며, 전면에 적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2월 5일부터 Round-up작전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이 전역은 彭德懷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행되었고, 중공군은 고전했다. 彭德懷는 38 선까지 후퇴를 결정하고 3월 14일 서울에서 철수했다. 특히 지평리 전투에서는 4개 사단이 투입되고도 미 제2사단 23연대(프랑스대대 배속)가 방어하던 지평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중공지도부는 38 선이 가지는 정치적·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그 이상의 철수는 불가하다고 보고 이 선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고수했다.

4. 전선교착과 중·소 内証

중공군의 제5차 전역은 1951년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개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는 전략적 방어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원군총사령부”도 참전 이래 8개월 동안 대유동-군자리-대산리-공사동을 거쳐 평양부근의 회창으로 옮겼다.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제5차 전역 후, 联合司는 현지 사수를 강조하면서 전 전선에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땅굴을 파고 참호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투진지를 지하화해서 미군 공습을 효과적으로 막는 효과는 있었으나 등잔불 사용으로 산소가 부족하여 호흡기 질환자가 늘고 또한 불을 피울 수 없어 미솟가루를 상용함에 따라 영양결핍을 초래했다.

한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軍委는 3교대 작전이라는 새로운 작전교대주기를 마련하였다. 즉, “조선”에서 작전하고 있는 9개 군 30개 사단을 제1번 지원군, 제19병단 3개 군과 20병단 2개 군, 동북으로 이동 중인 제3병단의 3개 군과 호남서북부에서 剷匪중이던 47군을 묶은 9개 군 27개 사단으로 제2번 지원군, 평양부근에서 정비 중이던 제13병단과 3월에 2차로 들어오는 3개 군, 동기무 병단의 2개 군을 포함한 9개 군 27개 사단을 제3번 지원군으로 했다.(『抗美援朝戰爭史Ⅱ』, 2000: 246-247)

제2번 지원군은 4월 상순 38 선 부근에 도착해서 한강전선에 있는 6개 군과 임무를 교대했다. 전투부대의 윤번제가 가동되던 1951년 4월 중순에 이르러 한반도 내에 배치된 중공군은 제1선 병력과 정비중인 부대를 합쳐 16개 군, 47개 사단 7개 포병사단, 4개 고사포사단, 4개 탱크연대, 9개 공병단, 3개 철도병사단 등 총병력이 95만 명에 달했다.

1951년 3월 1일, 毛澤東은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내 장기전에 대비한 대규모 소련공군의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미공군기의 폭격으로 전선에 보내는 물자는 60~70%만 도달하고, 그 동안 4차례의 전역에서 10만 장병이 사상되었으며, 앞으로 30만 명 정도의 병력손실이 예상된다”면서 “4~5월 중에 10개 항공여단을 전투에 투입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스탈린은 여전히 소련공군의 직접적인 전선투입을 회피했다.

이와 별도로 毛澤東은 윤번제 작전에 따른 60개 사단의 무기도입을 위해 徐向前을 소련으로 파견하여 교섭토록 했다. 그러나 소련은 1951년에 16개 사단 규모의 무기장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1954년까지 분

할해서 인도하겠다고 했다.

소련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둘러싸고도 중·소 사이에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毛澤東은 1951년 7월, 스탈린에게 “지원군”에 소련군사고문단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毛澤東은 그들로부터 선진작전기술을 배우기보다는 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봄으로써 소련으로부터 무기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받으려는 의도였고, 이를 간파한 스탈린은 중국이 요구한 “각 군 고문단” 대신 “지원군사령부”에 5명의 고문관만 파견했다.

5. 휴전협상의 전개와 종결

1) 휴전협상의 개시와 전개과정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대사 말리크가 휴전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중국과 미국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美蘇 사이의 휴전협상 진행과 동시에 김일성은 高崗과 함께 毛澤東·周恩來를 만나 “현 상황에서 휴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데 합의했다.(『板門店談判』, 1992:125) 누가 휴전 협상을 주도하느냐는 스탈린이 교통정리 했다. 6월 30일, 스탈린은 毛澤東에게 전문을 보내 “협상은 毛澤東이 지도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서울신문』1995.7.18) 따라서 공산측 휴전 협상은 毛澤東의 지휘 아래 현장에 파견된 중국대표단에 의해서 운용되었다. 물론 毛澤東은 휴전협상 과정을 수시로 스탈린에게 보고하고 그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중국대표단장은 외교부 제1부부장 겸 軍委 정보부장 李克農이었다.(『板門店談判』, 1992:119)

7월 10일 10시, 휴전회담 제1차 회의가 개성에서 거행되었다. 공산측 대표단은 중국측 鄧華·解方, 북한측 남일·이상조·장평산이 임명되었고, 수석대표는 남일이 맡았다. 표면상으로 북한이 회담을 주도하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李克農이 지휘했다.

휴전협상에서 毛澤東과 김일성은 조기종결의 입장을 보인 반면, 스탈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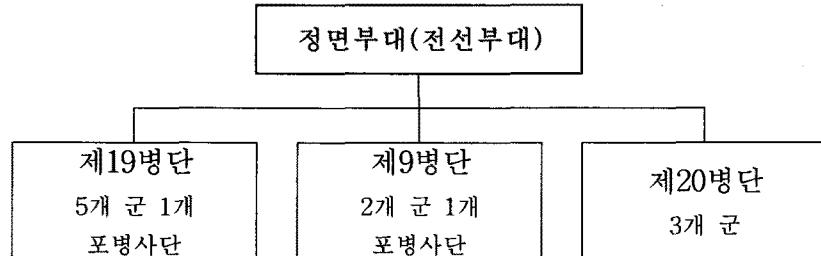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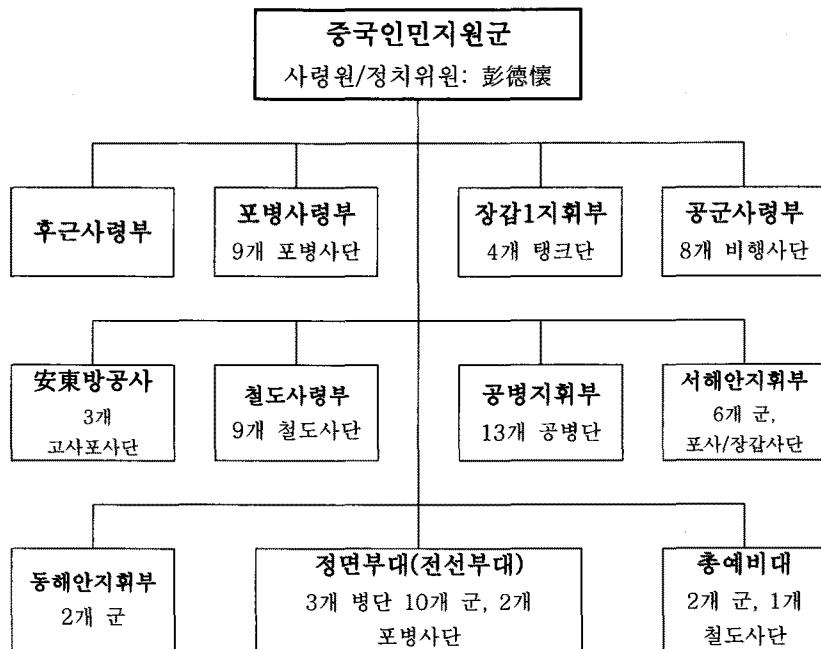
린은 보다 원칙을 고수했다. 1951년 8월 13일 毛澤東은 스탈린에게 조중측이 주장하는 “38 선 기준의 정전” 안과 유엔군측이 주장하는 “현 전선 휴전” 안 사이에서 대립이 격화되자 협상을 결렬시키기보다는 유엔군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11월 19일 “미국이 휴전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조기 휴전을 보다 필요로 하는 쪽은 미국”이라면서 서두르지 말도록 요구했다. (『서울신문』 1995.7.23) 그러나 결국은 스탈린이 양보하여, 1951년 11월 27일 조중측과 유엔군측은 현 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데 합의를 봄으로써 휴전협상은 속도가 붙었으나, 포로교환문제에서 협상은 다시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1952년 1월, 유엔군측은 포로 자유송환원칙과 1:1교환을 조중측에 제안했다. 유엔군측에 억류된 포로는 10만 명인데 반해 조중측에 억류된 포로는 미군 3,800명을 포함해 총 13,800명에 불과했다. 공산측은 이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그러나 사정은 간단치 않았다. 휴전회담으로 전선이 교착된 가운데서도 미 공군이 북한 내 폭격을 계속하면서 조중측의 손실은 막심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수뇌는 조기 휴전을 원했다. 이를 위해 1952년 8월 毛澤東은 周恩來를 모스크바로 파견하여 스탈린과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때도 스탈린은 “북한은 인명손실 외에는 잊는 것이 없다”라면서 조기 휴전을 반대했다.(『서울신문』 1995.7.25)

2) 휴전회담의 타결

1953년에 들어서면서 美蘇 양국에 변화가 발생했다. 미국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1월), 소련은 스탈린이 사망(3월)하였다. 이 때 유엔군 측이 제안한 “부상포로 즉각 교환”을 조중측이 받아들임으로써 포로송환문제로 천연되고 있던 휴전회담은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상 조중측이 포로의 자유송환원칙을 수용한 셈이었다.

1953년 4~5월 사이 중국인민지원군전투서열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3월 30일, 周恩來는 “쌍방은 정전 후 즉시 자기가 수용하고 있는 포로 중 송환을 요구하는 모든 포로를 송환하고 그 나머지 포로는 중립국에 넘겨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로 인해 유엔군에 억류된 중공군포로 21,000명 가운데서 14,300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臺灣으로 갔다.

1953년 4월 26일, 휴전회담이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재개되었고, 6월 8일에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직권 범위”문건에 합의함으로써 휴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포로교환문제가 해결되었다. 6월 16일에는 쌍방이 실제 대치선을 따라 군사분계선을 확정했고, 1953년 7월 27일, 쌍방은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蘇共 중앙위원회 최고간부회의는 김일성이 휴전협상에 조인하기 위해 직접 판문점으로 가는 것은 “이승만 일당이 어떤 위험한 술책을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조선동지”를 판문점에 보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휴전협정 서명대표로 북한은 최용건, 중국은 彭德懷가 참석했다.

휴전협상은 표면에 김일성을 내세웠으나, 스탈린의 위임에 따라 毛澤東이 조정했으며, 李克農을 대표로 하는 중공대표단이 실무 조정을하게 되었다.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이 중국과 북한은 조기 휴전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를 끈 것은 소련이 미국과의 협정에 대한 쟁탈 때문이었다.

6. 중공군 참전의 영향

중공군 참전은 무엇보다도 괴멸 직전의 김일성정권을 회생시켰고, 전쟁양상을 뒤집어 전쟁이 휴전상태로 봉합되도록 했으며, 반영속적 한반도 분화를 가져왔다. 중공군 참전은 중국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전쟁 개입의 대가로 중국은 18만 여의 전사자를 포함해서 100만 명

이상의 인명손실을 가져왔다.⁷⁾

당시 중국은 오랜 기간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겪은 상태라 경제는 파괴되어 있었고, 내부개혁도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런 와중에 막대한 전비와 인력을 3년간이나 한국전쟁에 투입함으로써 내부 경제발전과 개혁은 그만큼 지체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대응을 통해 그들이 두려워하던 미국의 “북조선지역 장악”을 저지함으로써 참전의 기본 목적을 달성했고, 미국군대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다. 이 전쟁을 통해 毛澤東의 권력 기반도 한층 굳어졌다. 또한 소련으로부터 현대화된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받음으로써 해방군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라는 국제전쟁의 구도로 전환되었고, 세계 냉전구도를 고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국의 위상도 높아져 전쟁 수행 과정에서 중소간 미묘한 긴장과 대립은 중소분쟁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했다. 북한과 중국은 전쟁 이전부터 공동의 항일투쟁과 혁명경험으로 동지적 유대감을 가진데다, 전쟁을 통해 이 유대감은 혈맹으로 발전하였고, “지원군 출신”들이 해방군 수뇌를 형성하여 수십 년간 군사적 동맹관계를 실질

7) 중국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사 171,700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丹東의 抗美援朝 紀念館에 소장된 전사자 명단은 171,669명에서 183,108명으로 증가 되었다. 또 부상자와 비전투손실, 포로 또는 실종자를 합해 38만 3천명, 입원환자가 45만 5천여 명이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장진호전투에 참가했던 제9병단에서 발생했던 동상환자 수만 명 등 비전투손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 추정 중공군 인적 피해

단위: 명

구 분	계	전투손실	비전투손실
총 계	972,600	369,600	603,000
사 망	148,600	135,600	13,000
부 상	798,400	208,400	590,000
실 종	3,900	3,900	-
포 로	21,700	21,700	-

『한국전쟁 피해 통계집』(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96), P.145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전쟁이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중공군의 참전은 북한의 내부 정치판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한때 유엔군의 북진으로 당과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내몰렸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김일성은 전쟁 실패의 책임을 져야 했으나 중공군 참전 이후 김일성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북한-중국관계』, 2000:280)

중공군 참전으로 작전지휘권을 지원군에 이양한 김일성은 작전의 압박에서 벗어나 역량을 당권 장악에 쏟았다. 그 결과 무정, 허가이, 박현영 등 정치적 라이벌을 숙청하고 박일우 등 친중 연안계열을 권력 핵심에서 배제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이 한때 북한정권 형성 과정에서 국내계와 연안계, 소련계를 대표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숙청은 곧 김일성 중심의 단일지도체계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김일성의 전쟁지휘권 상실을 의미하는 联合司의 구성이 역설적으로 김일성의 권력 강화시기를 앞당긴 것이 되었다.

IV. 역사적으로 본 북한·중국 관계

1. 북한정권 창건 이전

1) 제2차 국공내전 이전

• 만주에서의 한인공산주의운동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 1921년 봄부터 간도⁸⁾지방에 공산주의 선전문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8) 간도(間島): 현재 중국 東北의 吉林省을 중심으로 遼寧省·黑龍江省 일대 한인 거주지역의 통칭. 간도는 북간도 서간도 동간도로 구분되나 통상 동간도를 가리킨다. 중국에서 간도는 두만강 이북과 해란강 이남의 연변조선족집거지역으로 한

1923년에 접어들면서 국내 공산주의 각 계파가 경쟁적으로 만주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926년 5월 16일, 조봉암(曹奉巖) 등 화요계가 주동이 되어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을 설립하였다. 주 활동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만주 일대였다.(『북한 조선노동당의 형성과 발전』, 1970:59) 공산당의 세가 확장되자 일제는 자연 이를 주목하게 되었고, 간도총영사관이 한인공산당간부를 검거하는 사건이 1926년과 1927년 두 차례나 일어났다. 이 “간도공산주의사건”으로 만주총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조직은 거의 와해되다 시피 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조선공산당만주총국”보다 늦은 1928년 1월에야 奉天에 중공만주지부를 조직하였고, 때마침 일어난 濟南사건과 張作霖 폭사사건을 틈타고 그해 10월 만주지부를 중공만주성위원회로 확대 재편하였다. 당시 만주의 정치·경제·사회 현상은 關內와는 달랐기 때문에 중공은 현지적응을 중시했다. 그중에서 간도지방은 조선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동맹대상으로 삼아야했다. 이를 위해 중공은 조선인들 속에 뿌리박고 있는 한인공산주의자들을 그들의 조직 속으로 끌어넣을 필요가 있었다. 결국 중공은 코민테른의 “일국일당” 원칙을 내세워 한인공산주의자들에게 만주총국을 해체하고 중공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全球化背景下，中國民族政策及朝鮮族歷史、現狀和未來』, 2004:41) 한인공산주의자들 가운데 조봉암과 홍남표(洪南杓)가 주축이 된 화요계와 M·L계가 중공 가입에 적극적이었다. 중공만주성위원회는 李立三노선⁹⁾에 의거 화요계와 M·L계를 부추겨 1930년 5월 30일을 기해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 이것이 제1차 간도폭동사건이다.

『5·30폭동』을 계기로 간도지역에는 소규모의 자연발생적인 공산유

정하며, 연길, 왕청, 화룡, 혼춘 등 4개 현시로 지정하고 있다. 1904년 9월 4일, 청과 일본은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함에 따라 그 협약의 위법성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9) 李立三노선: 1928년 7월 중공의 실권을 장악한 이립삼은 전면적 무장폭동을 통해 우선 1개 성 또는 수 개 성을 점령하여 단숨에 공산혁명을 이루한다는 것.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격대가 조직되었고, 1932년부터 중공만주성위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그해 5월 磐石中心縣委에 동북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이것이 다시 동북 농공의용군에서 중국홍군제32군남만유격대로 개칭되었고, 1933년 9월 18일에는 楊靖宇를 총사령으로 하는 빨치산 조직인 東北人民革命軍으로 조직되었다.

• 김일성의 등장과 抗日聯軍

김일성은 1930년 중반기 동북인민혁명군 예하에서 소수인원을 이끌고 吉林省 각지에 출몰하여 일본군 宮本소대를 전멸시키고, 滿軍 前田중대를 습격하였다.(『북한 조선노동당의 형성과 발전』, 1970:75) 1936년 1월에 접어들면서 東北人民革命軍이 東北抗日聯軍으로 개편될 시, 김일성은 師長에 올랐다.¹⁰⁾ 이후 항일연군은 중공유격대가 주축을 이룬 가운데 東滿에서는 김일성, 北滿에서는 김책·최용건 등이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 시기 東滿特委는 조선인을 보다 많이 포섭하기 위해 1936년 5월 “재만한인조국광복회”를 조직하여 외곽단체로 삼았고, 제2군참모장 전 광과 김일성 등에게 “한인조국광복회 장백현공작위원회”를 조직도록 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극동정세가 긴장하자 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련은 하바롭스크군사령부를 통하여 동북항일연군을 조정·통제했다. 이때 김일성의 제6사는 함경도 보천보를 습격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김일성은 ①국내에 그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②함북 무산군에 침입하였다가 일본군경의 토벌대에 포위되어 전멸 위기에 있던 제4사를 간접 구원하였으며, ③물자를 대량 노획하여 군자금으로 사

10) 동북항일연군의 조직은 3路 9軍 18師로 조직되었으며, 師 밑에는 團, 連, 排, 班을 두는 삼삼체였다. 1개 사의 병력은 약 200명 정도, 김일성은 제1로군 2군 6사장이었다. 김일성의 직속상관 제2군 군장은 王德泰, 제1로군 총사령은 楊靖宇였다. 최현은 제3로군 4사의 정치위원, 최용건은 제4로군 참모장이었다.

용하였다. 이런 행위가 오히려 하바롭스크군사령부의 신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으로서는 한인공산주의자들의 파벌싸움에 지쳐있었는데 묵묵히 지령대로 행동하는 김일성의 태도에 만족했다.

1939년 가을부터 실시된 일제의 대토벌작전으로, 항일연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는 소련경내로 이동했고,(『黑龍江黨史資料』 제10집, 1987: 167-168) 이들은 소련공농 독립 제88보병여단(이하 88여단)으로 조직되었다. 88여단의 정책임자는 항일연군이 맡고 부책임자는 소련군이 맡았다. 여단장은 周保中, 정치위원은 李兆麟, 김일성·강건·김책 등은 중간 책임자로 있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88여단은 만주와 북한 일대의 소련군정지역에 보조인원으로 투입되었다. 당시 88여단에 있던 조선인 항일유격대원은 모두 170여명이었다.(『東北的抗日遊擊戰爭和抗日聯軍』(草稿), 1992:22) 이들 중 일부가 만주지역에 잔류한 것 외에 대부분 북한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소련군의 향도요원의 신분 또는 위수부대의 보조요원으로 입국했으며, 이 가운데 최용건, 김일성, 김책, 안길, 김일 등이 있었다.

• 朝鮮義勇軍

조선의용군은 1938년 10월 10일 武漢의 八路軍判事處에서 周恩來와 郭沫若의 도움으로 최초 “朝鮮義勇隊”로 출발했다. 중국이 일본에게 무한을 잊은 후 “의용대”는 八路軍 武漢判事處를 따라 桂林, 洛陽 등을 떠돌다 일부는 西安의 국민정부에 의지했고, 소수는 重慶에서 광복군이 되었다. 그리고 대다수 인원은 1940년 말 陝北의 延安으로 왔다. 이들은 1941년 초 연안에서 黃河를 건너 太行山 근거지에 도착해서 八路軍의 제129사단 소속으로 일본군 배후에 대한 반전(反戰)을 선전하는 심리전을 전개했다.

일본군의 공비소탕작전이 갈수록 심해지던 1942년 5월 14일, “華北朝鮮青年聯合會”는 七原村에서 제1차 대표대회를 열고 명칭을 “화북조선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독립동맹”으로, “조선의용대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화북지대”로 개칭하고, 무정¹¹⁾을 총사령, 최창익을 독립동맹의 총서기, 박효삼을 지대장으로 선출했다. 대원은 약 100여 명이었다.

조선청년독립동맹은 1942년 1월 6일 칠원촌 보정사에서 조선청년간부학교를 개설하고 170여 명의 간부를 양성했고, 1943년 9월 南庄村에서 조선혁명군정학교를 개설하고 당·정·군 간부 300여 명을 양성하였다. 북한정권 성립 후, 인민군부총사령 무정, 부수상 최창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두봉(金斗奉) 등이 이 남장춘군정학교에서 일했거나 학습했다. 1945년 8월 9일, 조선의용군은 독립사령부를 구성하고 八路軍 포병단장 출신인 무정을 사령관, 박일우를 부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임명하였다.(『朝鮮義勇軍研究』, 1994:117)

1945년 8월 11일, 조선의용군은 朱德으로부터 八路軍 각 부대와 함께 동북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10월 말 濬陽에 도착했고, 이때 세력은 이미 7개 지대로 확대 되어 있었다. 이어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들어가려 했으나, 포츠담협정 위반이라며 소련군에 의한 무장 입국이 거절되었다. 마침 중공은 국부군과 전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동북지방에서 조선족부대의 확충을 희망함에 따라, 이들은 회의를 열고 조선독립동맹[정치세력]은 귀국하고 조선의용군[무장세력]은 만주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朝鮮義勇軍第1支隊史』, 1992:21)

2) 제2차 국공내전 시

1945년 일본 항복 당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만주지역은 소련군이 점

11) 무정(武亭): 원명 김무정, 1905년 함북 경원군출생. 홍군(紅軍)에서 중대장, 대대장과 단장 역임. 장정에 참가했으며 1934년 12월 홍3군단 포병대대장. 장정 종료 후 홍군대학에서 공부, 홍군총부작전과장. 1937년 팔로군 포병 재건 책임, 1938년 1월 팔로군 첫 번째 포병단장 역임. 연안파의 핵심인물. 북한으로 귀환 후, 조선인민위원회중앙위원, 노동당 제2서기, 조선인민군제2군단장, 수도방위사령관 등 역임, 1951년 7월 평양에서 병사.

령했고, 이 호기를 타고 毛澤東은 8월 11일부터 11월까지 당정간부 2만여 명, 군대 10만 명을 만주로 진출시켜, 10월 말 林彪를 총사령으로 하는 동북인민자치군을 출범시켰다.(『中國人民解放軍大典』, 1997:603-605)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부군은 소련의 비협조로 만주진입이 지체되었다가 11월 5일에야 山海關에 도달했으며, 11월 13일 1,500명의 병력을 長春에 공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해방군을 대도시에서 몰아내고 주요 교통선을 장악해 나갔다.

소련은 비록 국민정부와 『중소우호조약』을 체결하여 국민정부의 만주지역 진주를 허용하긴 했지만 초기 중공의 만주 진주를 용인했고, 88여단에 있던 항일유격대 대원들을 소련군 위수사령부 요원으로 위장하여 만주 주요지역에 진출시켰으며, 일제가 만주지역에 남긴 막대한 양의 무기와 탄약을 중공에 넘겼다. 이것은 소련군이 1946년 5월 여순'대련지역을 제외하고 만주 전 지역에서 철수하자, 해방군은 바로 공세를 취하여 만주의 주요도시를 점령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비록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는 했으나, 최초 중공의 전력은 국부군에 비해 열세여서 조선인 부대의 건립과 확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제2차 국공내전 시, 만주지역 조선인은 대부분 중공에 동조하여 해방군 일원으로 참전했고, 그 수는 무려 6만 3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만주 지역 조선인의 5%에 달했다.(『中國朝鮮族研究論叢Ⅱ』, 1992:69) 조선인들이 왜 중공에 동조했는가 하는 것은 국제공산당의 “일국일당”원칙과 항일연군, 조선의용군의 영향도 커고 또 일본항복 직후 만주지역에서 국민정부와 끈이 닿은 土匪들이 조선인을 공격해서 인명을 해치고 재산을 약탈하는 사건이 빈발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중공이 조선인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국공내전에 참가하는 동시에 “조선유사시”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조선인들 사이에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서는 “여기도 내 조국, 저기도 내 조국”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호응도가 컸다.

• 북한의 중공지원

국공내전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북한을 통치하던 김일성은 지원을 부탁하러온 중공간부에게 “중국의 사정은 곧 우리의 사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中共黨史資料』 제17집, 1985:208) 1946년 후반기, 국부군이 潘陽과 長春 등 동북의 대도시를 점령하자 해방군은 南滿과 北滿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가 끊겼다. 중공은 북한의 북부지방을 경유하여 남만과 북만에 병력과 물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으며, 북한은 해방군이 전열을 정비할 때까지 중공에게 북부지방을 후방기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당시 중공은 평양에 東北局判事處를 설치하고 ①부상병 철수·안치 및 전략물자의 전이 ②북한의 도로를 화랑으로 삼아 남·북만 연결 및 물자교류 ③북한에 대한 작전물자의 지원요청과 구매 ④북한·중공 양측의 우호관계 증진 및 경제 교역 촉진 ⑤화교공작 등을 담당했다. 이들의 역할은 컸다. 일례로 1947년 해방군이 반격으로 전환할 때쯤 병사들의 신발이 절대 부족했다. 周保中은 그의 부인을 김일성에게 보내 신발지원을 요청했고, 김일성은 국내 수요를 미루면서 까지 이를 지원하는 등 북한의 능력이 뒷받침되는 한도에서 유·무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중공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해방군 후방기지로 북부지역 제공

1946년 하반기 국부군이 남만 깊숙이 진격해오자 해방군은 安東·通化에서 철수하면서 1만8천 명에 달하는 부상병·군인가족·근무지원인원을 북한 영내로 철수시켰다. 그리고 남만의 전체 전략물자 85%에 달하는 2만여 톤의 물자를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옮겼다. 또 珲春지역의 병기공장을 회령으로 옮기기도 했다.

○ 전략적 교통로 제공

1946년 국부군이 潘陽-長春의 교통로를 장악하자 주요 전략물자와 병력이동에 막대한 장애를 받았다. 이때 중공 東北局은 북한의 북부지방을 이용하여 물자운반과 병력이동 문제를 해결했다. 육상교통선은 안동-신의주-남양-圖們선과 通化-輯安-만포-圖們선이었고, 해상교통선은 大連-남포로 이어지는 선이었다.

○ 전략물자 등 기타지원

1946년 4월, 평북 인민위원회와 중공 安東省政府 간에 압록강 공동항행, 수풍발전소 전력공동사용을 합의했고, 북한은 중공에게 각종 폭약과 탄약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 등을 제공했다.(『周保中將軍傳』, 1988:517-522) 북한의 물자지원은 무상지원과 물자교환, 판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제가 남긴 2천여 화차분의 작전물자를 중공에 제공하기도 했다. 山東의 해방군도 1946년과 1947년 봄에 420톤의 폭약과 200톤의 질산, 100톤의 아세톤, 300만 개 뇌관, 120만 미터의 도화선, 15만 켤레의 신발을 구매해 갔다.(『中共黨史資料』 제17집, 1985:630)

● 解放軍 내에서 조선인부대 및 조선인의 역할

1945년 11월 10일, 무정은 조선의용군 전체 지휘원·전투원 대회를 열고 조선의용군을 제1·3·5지대로 재편한 후, 각각 남만·북만·동만 지역으로 나가 조선인을 규합해 부대를 확장토록 했다.

조선의용군 제1지대 병력은 약 1,600여 명이었다. 이 부대는 해방군이 潘陽에서 물러날 때 같이 물러나 南滿 지역에서 부대를 확충한 결과 1946년 2월에는 조선인 5천명으로 편성된 독립부대로 성장했다.(『조선의용군 제3지대사』, 1993:3) 제1지대는 1946년 2월 3일 통화에서 국민당 지하세력과 일본군 잔당이 규합해 일으킨 폭동을 진압한 것을 비롯하여 토비 숙청과 南滿鐵道 보호임무를 수행했으며, 1946년 12월 초에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는 東北民主聯軍 독립제4사단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이어 四平戰鬪와 遼瀋戰役에도 참가했으며, 1948년 11월 2일에는 해방군과 함께 潘陽에 입성했다. 이어 이 부대는 다시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단으로 개편되어 潘陽지역 위수업무를 담당했다.

조선의용군 제3지대는 1945년 11월 19일 북만의 하얼빈에 도착해서 하얼빈 보안총대 조선독립대대와 합류했다. 그러나 소련군이 중소조약에 따라 하얼빈 철수를 명령함에 따라 賓縣으로 이동했다. 제3지대는 남만의 제1제대처럼 주변의 조선인들을 많이 흡수하지는 못했고, 또 조선인부대들은 소부대 단위로 해방군에 편입됨에 따라 독립적인 대부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실제로 제3지대 병력은 1946년 하얼빈 수복 직후인 5월에 3천여 명을 고비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했다.(『黑龍江朝鮮民族』, 1988:111) 이 부대는 1946년 여름 동북민주연군 松江軍區 제8단으로 재편되었다. 제8단은 朱德海의 지휘 아래 北滿지역에서 주로 무기 경비와 수송 보위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다가 1948년 3월 연변지역의 吉東警備司令部 소속 조선인부대와 牧丹江軍區 제14단과 함께 東北人民解放軍 독립 제11사로 재편되었다. 이 부대 역시 遼瀋戰役에 참전해서 長春포위작전을 수행했고, 11월 말 中國人民解放軍 제164사단으로 재편되었다.

조선의용군 제5지대는 부사령 박일우의 인솔 아래 그해 12월 延吉에 도착했다. 제5지대는 太行山 시절 조선혁명군정학교 간부와 학생 900여 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박일우계열이었다. 이때 延邊에는 항일연군 출신의 강건이 이미 조선인 무장부대를 조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5지대는 독자적인 부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존의 연변지역 무장체계에 편입되었다. 당시 延邊軍分區 예하 총 2만 8천명 병력 가운데 조선인이 1만 2천여 명을 차지하였다.(『延邊歷史研究』, 1988:78) 이 부대는 1948년 11월 제4야전군 제43군 제156사단의 일부가 되었다.

해방군에 참전한 조선인 6만 3천여 명 외에 10여만 명이 지방무장조직, 수십만 명이 담가부대 또는 수송대로 일했다. 조선인 부대들은 長春과 四平戰鬪, 遼瀋戰役에 참가했으며, 동북에서부터 남부 海南島 전선까지 전 중국을 해방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49년에 들어서면서 중공의 승리가 눈앞에 있을 때, 조선인부대의 입북이 시작되었다. 제1제대가 遼瀋戰役 후 潘陽지역에서 위수업무를 수행 중이던 제166사단이 정치위원 방호산의 인솔 하에 안동에서 신의주로 건너왔고, 역시 遼瀋戰役에 참가한 후 長春지역에서 위수업무에 종사하던 제164사단은 부사단장 김창덕의 인솔 하에 함북 회령을 거쳐 나남으로 들어왔다. 중국의 남부지역까지 출정했던 제156사단은 1950년 3월 초에 河南省 鄭州에 집결하여 조선인들로 새로이 독립 제15사단으로 편성하고 제156사단 부사단장 전우의 인솔 하에 4월에 북한에 도착했다.(『군사논단제60호』, 2010:19-21) 이들 부대에 미처 합류하지 못한 조선인들은 소규모 단위 또는 중공군 제38, 39, 40 및 42군과 함께 입북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조선인 6만 3천여 명이 해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것 외에 10여만 명이 지방무장조직, 수십만 명이 담가부대 또는 수송대로 일했다.

- 국공내전 시 상호지원이 향후 북·중 관계에 미친 영향

북한의 지원은 중공이 위기 국면에서 전략지구인 만주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중공의 국공내전 승리는 북한의 통일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부군에 비해 절대 열세였던 해방군이 중국대륙을 공산화하자 남한보다 절대 우세한 전력을 보유한 북한은 공산화통일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 북한은 국공내전에서 단련된 인력을 흡수하여 건설과 전력양성에 크게 활용하였다. 또한 제1차 국공내전-제2차 국공합작-항일전쟁-제2차 국공내전으로 이어진 20여 년간의 긴밀한 유대는 6·25전쟁에서 중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국이 수십만의 인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정권을 떠받치는 바탕이 되었다.

2. 6·25전쟁 후 북한·중국관계

1) 戰後 중국의 경제지원과 중공군 철수

전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경제지원과 중공군의 잔류를 통한 안보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1953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朝中경제'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1953년 말 이전에 북한에 제공된 원조를 일체 무상으로 했고, 다시 북한경제 부흥을 위해서 1954년부터 1957년까지 8억 원(현 인민폐 가치) 무상원조에 합의했다.

북한주둔 중공군도 전후 복구사업에 적극 나섰다. 또 중국은 북한의 부족한 노동력 지원을 위해 1954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일부 조선족을 전후 복구건설에 참가시키기도 했고, 1958년경에는 아예 조선족 일부를 북한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1953년 정전 시, 북한 내의 중공군은 모두 120만 명이었다.(『抗美援朝戰爭史III』, 2000:319) 중국은 1954년 9월부터 195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9개 사단을 공개적으로 철수시켰고, 별도로 비밀리에 6개 군과 포병·고사포·공안·철도병 사단과 기타 특종부대, 제3병단과 제9병단 사령부를 철수시켰다. 이로 인해 1955년 연말까지 북한에 잔류한 중공군은 5개 군과 약간의 포병·고사포병·장갑병·공병사단과 후근부대들이었다.(『抗美援朝戰爭史III』, 2000:520)

북·중간에 중공군의 완전철수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말부터였다. 1957년 11월 모스크바의 『10월 혁명』 경축행사에 참가한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지원군 철수”를 제의했다. 처음 김일성은 이외라

생각했으나 유엔군 참가 국가의 부대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고 미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모택동의 설명을 듣고 김일성은 수긍했고, 양측은 1958년 10월까지 지원군을 완전 철군하기로 합의했다. (『中國外交演義-新中國時期』, 1992:185) 중공군의 북한 철수 이전에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가 1955년 1월 21일자로 정전위원 1인과 연락처 소수 인원을 남기고 철수하고는 주 업무를 북한이 맡도록 했다. (『板門店談判』, 1992:318) 중공군의 철수가 완료되자 김일성은 월남을 방문하는 길에 오가며 11월 22일과 1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다. 그의 방중 명목은 <조·중 경제 및 문화협작에 관한 협정> 체결 5주년을 기념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의 부흥을 지원해준 데 대한 감사였다.

중공군의 참전과 전후 복구건설 지원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다. 전전(戰前)에는 소련의 일방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북한의 정치판도에 연안파를 중심으로 하는 친 중국세력이 형성되어 소련파와 각각 중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세력다툼을 전개했고, 마침내 김일성으로서는 일생의 치욕이라 할 수 있는 “8월 종파사건”¹²⁾을 겪게 되었다. 북한의 내부정치에 중국이 소련과 공동으로 개입한 것은 그만큼 중국의 입김이 세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바로 그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소위 “당중 교환 사업”을 진행하여 “연안파”를 완전 제거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 내의 인적 채널이 완전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1957년 11월 모스크

12) “8월 종파사건”: 김일성은 “중·소로부터 자주성 확보”를 내세우면서 1955년 12월 박일우를 “반당종파행위자”로 몰아 출당(黜黨)하고, 동시에 허가이로 대표되는 소련파도 숙청했다. 1956년 6~7월, 김일성이 동유럽을 순방하면서 소련파가 주축이 되고 연안파가 동조하여 김일성 축출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8월 30일 김일성의 귀국보고를 겸한 “8월 전원회의” 석상에서 이 음모의 주동자는 체포되거나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이에 소련은 미코얀 제1부수상, 중국은 彭德懷를 북한으로 보내 김일성에게 “8월 전원회의” 결의를 번복하도록 했다. 특히 팽덕회는 연안파의 거두인 김두봉의 집에 머물면서 장시간 사태 수습을 강구하였다. 결국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반대파를 복권시켰다.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바회의에 참가한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8월 종파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2) 중 · 소분쟁과 북한-중국관계의 밀착

중소갈등이 노정된 것은 毛澤東이 195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 40주년을 기념하고 모스크바선언 채택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부터였다. 이때 毛澤東과 蘇共수뇌 사이에 평화공존과 전쟁불가피론을 둘러싸고 의견충돌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중소 사이에는 국제문제나 양국관계에서 서서히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로 비판했다. 중소가 균열조짐을 보일 때 북한은 중국을 지지했고, 소련에 의존해왔던 경제원조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

중국과 북한은 1958년 9월에 1959년부터 1962년까지 3년 간 <상호중요물자공급>을 약속하는 장기 무역협정과 중국의 대북 차관협정을 체결했고(『周恩來年譜 中』, 1997:175), 1961년 7월 11일 중국과 북한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당시 동유럽 공산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던 중공 편에 서서 “형제 당 간에는 상호지지와 내정불간섭, 단결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친명했다.(『周恩來年譜 中』, 1997:441) 흐루시초프가 알바니아를 비난할 때도 중공과 같이 비판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북한 · 중국 유착은 강화되었다.

1962년 10-11월 사이에 일어난 쿠바사태, 중인전쟁에서도 북한은 중국의 편에 서서 소련과 인도를 비난하였다.

북한 · 중국의 밀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조중국경선 획정이다. 1962년 10월 12일, 주은래는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中朝邊境議定書>를 체결했다.(『陳毅年譜 下』, 1995:938)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중에서 중소분쟁과 맞물려 북

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북한과 국경을 획정하는 것이 급했다.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국경을 획정하는 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쉬웠으나, 하천 상의 섬과 백두산 천지 부근이 문제였다. 양측은 1963년 3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실측을 통해 백두산을 포함한 1,334km에 달하는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하고는 1964년 3월 20일, <中朝邊界議定書>를 체결하였다.(『북한-중국관계』, 2000: 233)

이에 따라 천지는 면적의 54.5%를 북한, 나머지 45.5%를 중국에 귀속되었다. 중국이 백두산정계비를 국경획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면 천지는 사실상 중국에 속하게 되었을 런지도 모르나 현 상태로 마무리된 것은 북한은 나름대로 외교력을 발휘했고, 중국은 중소분쟁 가운데서 북한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압록강 상의 도서와 사주는 모두 205개로 그중 78개는 중국 나머지 127개는 북한, 두만강 상의 도서와 사주는 246개로 그중 109개는 중국 나머지 137개는 북한에 귀속되었다.

천지가 북한 대 중국 5:5가 아닌 54.5:45.5로 분할된데 대해 文革 기간에 말썽이 일어났다.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 州長 朱德海가 紅衛兵들로부터 “特務, 賣國奴”로 박해받았다.

3. 文化大革命과 북한 · 중국관계

1) 소련의 브레즈네프 등장과 중국의 문화대혁명 영향

1964년 10월, 소련에서는 흐루시초프가 실각하고 브레즈네프가 등장했다. 중국은 소련의 신지도부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북한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65년 월남전이 확대되면서 소련은 중국과 월맹지도부와 회합을 갖고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대응을 제의했으나, 중국은 소련의 수정주의적 자세를 구실로 거부했다. 이러한 거부는 결국 월남지원에 깊은 관심을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기울이고 있던 북한과 중국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관계에 긴장이 감돌면서 김일성은 1965년부터 연례행사화 되어 있던 北京방문을 꺼리기 시작했다. 대조적으로 소련과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1966년, 중국에 文化大革命(이하 文革)이 일어나고 문혁수뇌와 흥위병들은 북한수뇌를 “修正主義者”로 몰아붙였고, 북한은 중국을 “편협한 教條主義”로 맞대응했다. 1967년에 이르러서는 양측은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과 갈등하면서 毛澤東思想과 대비되는 “김일성주체사상”을 강조하게 되어 북한사회는 개인숭배로 빠져들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초반 사이에 중국에서 벌어진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도 북한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즉, 중국은 1969년 4월에 열린 중공 9大 통해 黨章程에 林彪를 “毛澤東同志의 친밀한 전우이자 후계자”라고 명시했다. (『中共黨員大辭典』, 1991:1,001) 1971년 9월 “林彪 사건”에 이어 1973년 8월 열린 중공 10大에서 중공은 38세인 上海 노동자 출신 王洪文을 후계자 지위로 끌어올렸다. 이 사건은 북한에서도 30대 초반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확정시키는 데 부담을 덜게 해주었다. 실제로 북한은 王洪文이 후계자가 된 지 5일 뒤인 1973년 9월 4일부터 열린 조선노동당 제5기 7차 전원회의는 김정일을 당 비서, 이듬해인 1974년 2월 후계자로 공인되는 정치국위원으로 선출했다.

2) 文革의 종결과 양국관계의 회복

북·중 사이의 경직된 관계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1969년 10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최용건이 이끄는 대표단이 중공정권 창건 2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1970년 4월 5-7일 사이 周恩來가 방북했다. 이번의 관계 회복은 단순한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북한의 대외적 자주성과 주체 확립이 인정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그해 10월 8-10일, 김일성은 北京을 방문해 毛澤東·周恩來 등과 회담했다. 毛澤東은 文革기간에 있었던 극좌파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자비판하여 김일성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중미관계 개선 초기부터 밀접하게 협력하며 이를 남북대화와 연결시켜 나갔다. 1971년 7월, 키신저의 비밀 방중과 닉슨 방중 합의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周恩來가 직접 평양에 가서 김일성에게 설명했다.(『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III』, 1999:40)

키신저가 중국을 떠나자 1971년 11월 1-3일까지 김일성은 北京을 방문하여 毛澤東·周恩來를 만나 周恩來-키신저 회담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1972년 2월 28일 上海 공동성명이 있은 직후인 3월 7~9일 사이 周恩來가 평양을 방문해 중미회담 경과를 김일성에게 설명했다.(『周恩來年譜 下』, 1997:515)

당시 북한과 중국은 새로운 정세변화 속에서 혁명전략에 약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북한에게 그것은 유엔과 비동맹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일전선의 강화와 대남관계에서는 하층 통일전선전략에서 벗어나 남한정부를 상대로 하는 상층 통일전선 병행 전략구사로 나타났다. 바로 <7·4남북공동성명> 발표가 그것이었다.

1970년 북중관계 회복은 북소관계의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북한은 과거 10년 간 중소와 애증관계를 종결짓고 서서히 정상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갔다.

4. 사회주의 붕괴 후의 북한·중국관계

1) 중국의 改革開放과 탈냉전시대 북한·중국관계

1978년 12월부터 중국은 鄧小平체제로 들어섰다. 鄧小平은 文革의 좌경 오류를 극복하고 “四個現代化”를 내세우며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추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진했다. 중국은 북한과 개혁개방에 대한 입장조율이 필요했고, 북한은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수뇌의 인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 속에 周恩來 부인 鄧穎超가 북한을 방문하여(1979.5) 물꼬를 뒀다.

그 뒤 김일성은 1982년 9월과 1984년 11월 중국을 방문했고, 1983년 6월 김정일이 胡耀邦 총서기의 초청으로 방중하자 鄧小平도 만나주었고, 김정일의 지방시찰에는 胡耀邦과 胡啓立이 동행할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1982년 4월 鄧小平이 胡耀邦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중 관계는 아주 활발했다.

이러한 표면적인 교류와는 달리 노선의 차이로 인한 균열의 위험성은 항상 내재해 있었다. 중국은 毛澤東 시대의 “세계대전불가피론”이 “세계대전가피론”으로 수정되었고, 社會主義初級段階論을 내세워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 나아가는 한편, 북한은 여전히 “제국주의자와의 탐협이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계획경제와 서방에 대한 공공연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다.(『로동신문』, 1989.12.22)

1980년대 말부터 북중관계는 사회주의 붕괴와 탈냉전이라는 추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변화했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하여 “중소관계 정상화”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했다.

1990년 9월, 한국이 소련과 수교하고 또 다른 동구권인 헝가리, 폴란드 등과도 수교함에 따라 북한은 외교노선에 근본적인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1991년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이 확실하게 되자 북한은 “두 개의 조선 인정반대”라는 그동안의 책략을 포기하고 1991년 9월 27일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

중국외교부는 북한이 유엔가입 신청을 발표되자 즉각 환영했다.(『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1992:2,583)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외교 노선을 따르기를 희망했으나 북한외교는 탈냉전이라는 시대의 조류에 대해서 자기 수정을 꿔하면서도 여전히 교조적이고 반서방적이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되면서 북중관계는 냉각되었다. 1992년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 시, 중국은 國家主席 梁尚昆을 평양으로 보내어 한중수교에 관한 사항을 통보했었다. 이 시기는 북한이 핵사찰 문제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의해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던 터라 북한이 입은 타격은 더 컸다.

그로부터 6년 간 양측의 고위급 교류는 없었다. 1994년 4월에는 북한은 일방적으로 중국 측 정전위원회대표단 철수를 요구하고, 동년 5월 27일부로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국의 실용주의 경제노선이 북한경제를 압박했다. 기존의 구상무역 대신에 현금 결제방식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995년부터 홍수와 가뭄피해가 겹치면서 계획경제를 기초로 한 북한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2) 북중관계 회복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새 수준"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은 1999년부터였다. 북한은 소위 “중국의 배신”에 대해 과거 냉전시대처럼 대할 수는 없었다. 북한은 중소로부터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 데다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맹”인 중국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했고, 북한경제의 고갈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99년 6월, 김영남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때 江澤民은 김영남을 맞이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미·일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공개적으로 권고했다.(『人民日報』, 1999.6.5)

2000년 5월 29-31일,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통보한다”는 평계를 대고 방중 했다. 형식은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초청하는 형식이었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 1995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했다. 이때는 그간 철폐했던 구상무역과 우호가격제를 다시 부활했다. 중국은 1996년 알곡 12만 톤, 1997년 33만 톤을 무상원조 하는 등, 식량과 원유를 제공하면서 북한이 명맥을 이어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가는데 큰 베풀목 역할을 했다. 중국은 북한이 경제난 심화로 인해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대두하게 되자 다시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로 되돌아갔으며, 김정일 방중으로 나타났다.

2001년 1월 15~20, 江澤民의 초청으로 김정일이 다시 방중 하였고, 김정일은 4일간 上海를 방문하여 浦東地區를 참관했으며, 당시 朱鎔基총리가 수행하는 등 중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그해 9월 3~5일, 江澤民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이것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최고지도자의 북한 방문이었다. 쌍방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의 정신에 따라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더 높은 발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中國外交』, 2004:110) 이때 중국 측은 북한에 알곡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원조 했다.

2004년 4월 19~21일, 김정일은 中共總書記 胡錦濤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고, 軍委主席 江澤民을 비롯한 吳邦國, 溫家寶, 賈慶林 등과도 회견했다. 이때 胡錦濤는 “조선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의 발전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조선 측이 자기 나라의 형편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데 지지하며, 조선 측이 제기하고 견지하고 있는 자주‘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조선 측이 국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핵문제에 관해서 3자회담과 6자회담의 성과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하여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2005년 10월 28~30일, 김정일의 초청에 의하여 胡錦濤가 북한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때 胡錦濤는 김정일에게 4가지 의견을 제기하였다. ①고위급 내왕 계속과 상호 의사소통 강화, ②교류 영역 확대 및 협조내용을 풍부히 하며, ③경제무역협조로 공동의 발전 촉진, ④조절과 배합을 적극적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수호와 한반도비핵화·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2006년 1월 10-18일, 김정일은 네 번째 중국을 방문했다. 이때 김정일은 北京 외에 湖北·廣東을 둘러보았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10월 18-19일 胡錦濤의 특사 唐家璇이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나 의견 조율을 했다. “한반도비핵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 중국의 난처한 입장과 향후 국제적 제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했다. 제1차 때와는 달리 중국 내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09년 6월 12일, 주유엔 중국대사 張業遂가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문제 결의가 통과된 후 해명성 발언을 하였고, 2009년 6월 13일, 중국외교부 대변인 秦剛은 유엔안보리 제1,874호 결의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중국도 책임 있는 국가로써 국제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국은 북한을 다독거릴 필요가 있었다. 2009년 10월 4-6일, 溫家寶총리가 “수교 60주년 경축”을 구실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했다.

2010년 5월 3-7일, 김정일은 다섯 번째로 丹東-大連-天津을 거쳐 北京을 방문했다. 이 시기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며,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이며, 북한이 극도로 춘궁기를 겪고 있는 시점이며, 금강산사업 중단으로 현금이 극도로 부족한 시점이기도 하다. 김정일은 지난번처럼 중국의 개방 효과가 잘 드러나고 있는 지역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북한의 개방에 얼마나 적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화사통신은 “5월 5일 胡錦濤는 김정일과 회담하면서 중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고위층 교류 지속 ②전략적 소통 강화. 양국 내정이나 외교에서의 중대 문제에 대한 수시 혹은 주기적 의사소통 ③경제무역 협력 심화 ④人文교류 확대 ⑤국제·지역 문제 협력 강화 등 5개 항목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http://www.cnhan.com>, 검색일 2010.5.10) 그러나 북한관영통신은 위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2010년 8월 26-30일까지 삼남 김정은을 대동하고 여섯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여 “김일성항일유적지”를 둘러보고, 8월 27일에는 장춘에서 호금도와 회담했다. (<http://news.joins.com>, 검색일 2010.09.01) 그러나 동선의 요체는 성지순례로 “혁명협통”을 내세워 삼대세습을 정당화하면서 일제 강점기의 중국공산당과 김일성의 항일연대, 국공내전 당시 김일성의 대 중공지원을 강조해 “아버지의 업적과 궤적”을 외교와 국내정치에 활용했다.

김정일은 호금도와의 회담에서도 김일성의 업적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이 “동북지방은 김일성동지가 중국의 혁명가, 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20여 년의 혁명투쟁을 벌인 잊을 수 없는 고장”이라며 “김일성수령 심중엔 동북의 정든 산야와 함께 싸운 중국동지들에 대한 생각이 한시도 떠나 본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호금도 주최 연회에서도 김정일은 “吉林省과 黑龍江省은 일찍이 김주석이 중국동지들과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벌인 불멸의 발자취가 어려 있다”고 했다.

호금도는 “동북지역의 어디에나 김일성주석동지의 혁명 발자취가 역력히 어려 있다”며 “김주석은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중국혁명 승리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화답했다. 둘은 대를 이은 친선·협조를 강조했다. 덧붙여 중국·북한 사이 “①고위층 간의 계속 왕래와 상호 소통 ②경제무역 협력을 강화 ③ 전략적 소통 강화”를 중점 언급했다. 특히 “중·조 사이에 중대한 문제는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깊이 소통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공동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호금도는 중국의 개혁개방 30여 년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경제발전은 “자력갱생”에 의존해야하지만 “대외협력”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고, 『천안함 사

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등을 피력했다.

현재까지 중국의 대 북한 정책에서 나타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 즉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에 대한 강제 제재에는 반대하고 경제지원을 강화하여 명맥을 잇게 한다.

둘째, 북한의 존립을 해치지 않는 문제는 국제관례와 중국의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한다.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동의, 북 핵개발 반대, 6자회담 주도,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제1,874호 이행 등이다. 셋째, 중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리지 않는 문제는 최대한 북한의 뜻을 수용하고 있다.

V. 북한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1.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에 의한 중국의 역할 종합

1) 북한 유사시 또는 급변사태에 대한 개괄

북한 유사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국내외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필자는 평화적이든 비평화적이든 북한체제에 변화가 일어나 외부세력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규정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남북 간의 긴장상태나 국부적인 전투행위 등을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김정일은 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총비서이자,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되는 국방위원장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인민군최고사령관이다.

1994년 7월,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을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중국으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로부터도 후계자로 인정받았던 김정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일은 건강이 악화된 반면, 2010년부터 삼남 김정은을 졸속으로 후계자로 선정했으나 그 후계구도는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김정일의 有故는 북한을 통치해온 “집단지도체제” 소멸을 의미하며, 북한 권력구조의 큰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 유사시”를 바로 김정일의 유고와 관련짓고자 한다.

김정일 유고 시 북한의 혼란상황에 대해서 고재홍박사는 “김정일이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집단지도체제의 경험이 없는 북한의 제 세력들이 중요정책 결정 혹은 후계자 옹립을 위한 파벌화로 권력투쟁이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김정일이 설사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명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이 되려면 김정일 생전에 국방위원장이 되거나 벼금가는 직위를 승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세력의 도전을 받아 무력충돌 또는 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군사논단 제60호』, 2009: 27)

북한 유사시는 바로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굳어지기 전에 사망하여 권력을 가진 세력끼리 파벌을 조성하여 권력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파벌 간 무력투쟁으로 번져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말한다.

북한 유사시 양상은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일 후계문제 또는 핵 문제 등 중요정책에 대한 북한 지도층 내 극심한 대립으로 김정은 체제가 통치권위를 확립하지 못한 경우, 북한군부가 통치전면에 나서 안정을 이유로 물리적 강제력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자체 내에서 수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유사시에서 제외한다.

둘째, 민생고로 북한주민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지방에는 군란 및 민란이 일어나 사회 무질서 현상이 확대되고, 후계정권의 강경진압으로 대

규모 탈북사태가 확산되며 친위 또는 개혁지향의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로, 이 사태는 쉽게 북한 유사시 또는 급변사태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되어 국제사회 또는 특정국가에 긴급 대북지원 요청을 하고, 급기야 제 세력 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이어 내전상태로 발전하여 인권유린과 유혈사태, 대량탈북이 이어지는 무정부상황을 초래하면서 기존 정권이거나 도전세력 중에서 열세에 처한 어느 일방이 특정국가에게 군사적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것은 바로 북한 유사시와 급변사태로 볼 수 있다.

2)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

다음은 중국이 북한 유사시와 관련지울 수 있는 지분은 어떤 것인가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 첫째, 중국은 북한과 내전을 통하여 상호지원 했다.

제2차 국공내전 시, 중공은 해방군에 참전한 6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유사시 북한으로 들어가 “인민군” 건설에 한 몫 하도록 했다. 1946년 후반기 국부군이 濬陽과 長春 등 대도시를 점령하자 해방군은 南滿과 北滿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끊겼다. 이때 중공은 북한의 북부지방을 후방기지와 전략교통로로 이용했다. 심지어 북한은 압록강의 공동항행과 수풍발전소전력 공동사용, 각종 폭약·탄약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 등 전략물자를 제공했다.

- 둘째, 중국은 6·25전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북한은 남침계획을 계획할 때부터 중공수뇌부와 협의했고, 毛澤東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1950년 4월 초, 김일성 · 스탈린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북한의 “통일과업을 위한 선제 남침”을 허락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중국과도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중국의 의견을 타진한다”는 형식을 빌려 중국의 개입을 기정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사실화하는 고도의 정치적 술책이기는 했다. 毛澤東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대해 “미군의 개입”을 우려하기는 했지만, 북한과의 “脣齒關係”, 소련과 맺은 『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을 더 크게 생각하고, 경위야 어떻던 “조선통일전쟁” 결정에 캐스팅보트로 참가하게 되었다.

- 셋째, 중국은 6·25전쟁 참전으로 북한정권을 구출하였다.

중공군의 참전이 소련의 공군지원 문제로 불투명했을 때, 스탈린은 周恩來에게 “중국이 곤란하다면 출병하지 않아도 된다. 북조선이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역시 사회주의이며 중국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까지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참전했고, 1·2차 전역에서 중공군은 38 선 이북을 회복해서 전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했으며, 심지어 제3차 전역에서는 유엔군과 한국군을 평택-안성-제천-삼척선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다. 제4차 전역에서 38 선을 마지노선으로 삼음으로써 오늘의 휴전선이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반영속적으로 분단시켜 놓았다.

- 넷째, 중국은 휴전회담을 막후에서 조정 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북한을 정전회담수석대표를 내세웠으나, 소련의 위촉을 받고 막후에서 정전회담을 조종했으며, 소련의 원칙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동조를 얻어 회담을 조기 타결하는데 기여했다. 비록 북한의 요구로 정전협정위원회를 완전 철수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전협정 당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다섯째, 중국은 북한의 전후복구 사업에 기여했다.

중국은 북한의 전후복구 사업에서 노동력의 직접 지원과 경제지원, 그리고 중공군의 잔류를 통한 안보를 지원했다. 무상원조는 물론이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일부 조선족을 전후 복구건설에 참가시켰고, 1958년에는 아예 조선족 일부를 북한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 여섯째, 중국은 “김일성정권 세습체제”를 굳히는데 직간접 영향을 끼쳤다.

文革 때, 북한은 중국과 갈등하면서 “김일성주체사상”을 강조하게 되어 북한사회는 개인숭배로 빠져들었다. 또 중국에서 벌어진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도 북한에서 김정일의 후계자 등장과 후계체제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즉, “林彪사건”과 “王洪文의 초고속 발탁”은 김일성이 30대 초반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확정시키는 데 부담을 덜어 주었다.

- 일곱째,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켜, 북한의 명맥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중소로부터 전략적 가치는 떨어졌지만,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혈맹”은 중국이다. 2000년부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북한의 튼튼한 베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식량과 원유의 무상원조를 비롯하여 구상무역과 우호가격제도 부활 등으로 북한 경제의 명맥을 잊게 해주고, 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적 고립에서도 항상 외교적 안보적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도 중국과 북한은 정부보다는 “당 대 당”的 “사전 통보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2. <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중국식 문서명)>으로 본 중국의 역할

이 조약은 전문과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1961년 7월 11일 北京에서 周恩來와 김일성 사이에 조인되었다. 이 조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조항은 전문과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다.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 전문: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을 상호 존중하며,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상호지원 및 지지의 기초 위에 양국은 형제와 같은 우호협력 협조관계에서 공동으로 양국인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제2조: 締約 쌍방은 締約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일체의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 일단 체약 일방이 어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연합의 무장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체약 다른 일방은 전력을 다해 즉각적인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 제3조: 체약 쌍방은 모두 체약 쌍방이 반대하는 어느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쌍방을 반대하는 어느 집단이나 어느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 제4조: 체약 쌍방은 양국 공동이익과 관련된 일체의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상한다.
- 제7조: 본 조약은 쌍방이 수정 또는 종결하는 데 대한 협의를 달성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북한 유사시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역할

첫째, 중국은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전쟁상태에 이르면 “자동 군사개입”을 할 수 있고 모든 지원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이익에 배치되는 동맹을 체결할 수 없으며 어떤 불록에도 가담할 수 없다.

셋째, 중국은 북한과 공동이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국제문제는 계속 협의해야 한다.

넷째, 중국은 자신이 원하더라고 북한이 원하지 않으면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없다. 즉 이 조약 유효기간이 없다.

위 조약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으나, 이 단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실제 전쟁상태에 돌입하면 누가 먼저 도발했느냐는 상호 주장이 엇갈릴 수 있다. 6·25전쟁이 바로 그렇다. 따라서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자동 군사개입”할 권한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3. 중국의 대 북한 외교지원

김일성 사후 중국은 북한을 위해 어떻게 외교적 지원을 했는가?

북한은 한중수교와 김일성사망, 식량난이 겹쳐지던 시기에 핵문제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직접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1999년 10월 당시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의 방북을 절정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자, 중국을 통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증가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시급해졌다.

1996년 6월, 김영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江澤民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발전을 우선 강조하고 남북관계와 북·미 및 북·일 관계 진전을 권고하였으나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 강택민이 남북관계개선을 북·미나 북·일 관계보다 우선하라고 충고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미·일이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 안에 대해 북한이 유리하게 협상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고 동시에 북한의 대남 관계 개선 노력이 아직도 불충분함을 암시한 것이기도 했다. 중국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북·미 관계 개선은 미국의 대북한 영향력만 제고될 것으로 우려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북한에 강조하였을 것이다.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제1차 남북정상회담 전 김정일의 방중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이 아직도 큰 틀에서 유효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존함을 나타낸 것이었다. 북한은 안보현안에 대해 중국과 사전조율 함으로써 향후의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바로 김일성 시대 “사전 통보외교”의 부활이었다.

『9·11 사태』 이후 2001년 11월, 북한 고위군사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軍委副主席 鄭浩田은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두 나라의 친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두 나라 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정에 이로운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9·11 사태』 이후 전개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공동 대응과 북한의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자임했다. 이후 핵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태에서도 중국은 대체로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4. 중국이 북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역할(종합)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은 “安定”이다. 중국은 안정적 기조 위에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화를 통한 통일”, “통일된 국가의 중립”을 의미한다.(『塑造中國的理想安全环境』, 2002:115) 소위 “安定”的 기조가 깨지면 북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친중세력이 반대세력에 밀릴 경우, 중국으로 도피할 것이며, 중국은 그들에게 東北三省을 후방기지 또는 유격기지로 제공할 것이다.

둘째, 북한에서 대량난민이 발생했을 경우, 中朝 국경지역에 난민촌 개설과 아울러 북한의 동의하에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武裝警察을 파견

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서 内戰이 발생할 경우, 해방군의 자동개입 명분을 계속 축적할 것이며, PKO 또는 한국군·미군의 개입 시 <중조우호협력상호 원조조약>을 들어 북한에 해방군을 진주시킬 것이다.

넷째, 특히 한국군과 미군의 직접적 개입 시, 潘陽軍區의 배비뿐만 아니라 軍委의 기동군단과 전략예비인 濟南軍區 예하 集團軍을 동북으로 전략적 이동을 실시할 것이며, 유사시 북한지역에 투입할 것이다.(6·25 전례 원용)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후견인 역을 자처하여 “조선”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할 것이며 북한이 무정부상태로 돌입했을 경우, 친중 괴뢰정권을 세운 후 한미 등 관련국과 협상에 임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북한지역에 최소한 완충지대를 설치하여 당분간 이해 당사국과 공동관리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VII. 결론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너무나 깊고 끈끈하다. 국가이익과 호혜평등을 최우선 시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혼치 않는 일이다. 여기에 문화적 동질성까지 더해져 양측의 밀도는 더 짙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될 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갈 것이다. 한반도 북부지역에 적대세력이 진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는 중국공산당 정권이 지속하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은 행동으로 북한정권을 지탱시켰고, 한반도를 반영구적으로 분단시켜 놓았다. 이후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고의는 아니었지만 “김일성 왕국”을 건설하게 했고, 정치의 폐쇄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성으로 인해 2천여 만 북한주민을 기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현재에도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에 관한 중요한 의제에는 꼭 중국이 등장하고 일정한 지분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도 이를 공인하고 있다.

북한은 후계세습 문제가 연착륙하게 되면 중국식 “정경분리”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현재처럼 여러 분야에서의 관계가 반드시 순탄하리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양측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고수와 경제적 대외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북한이 경제체제개혁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정치문제”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이 중국과 큰 차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이 개혁개발지향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양측 간 경제부문에서 이질감은 계속될 것이며, 부활된 사회주의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향후 북한 유사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는 북중관계의 연원과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무장공격”과 “전쟁상태”라고 전제는 했지만 자동개입의 조약이 있고, 과거 양측이했던 패턴대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 東北에 북한난민의 수용소 설치, 경제원조에서부터 친중세력에게 후방기지 또는 유격활동지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통일문제에서 한반도 북부지역에 중국과 적대세력이 진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완충지대 구축에 진력할 것이다.

중국도 대만과 통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분단국가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나 국제법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별개의 국가라는 측면에서 중국·대만 간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문헌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편저, 2004, 『6·25전쟁사1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편저, 2005, 『6·25전쟁사2권』
고재홍, 2009. 「Post-김정일체제와 북한정세 전망」,
『군사논단제60호』, 한국군사학회
김국현, 2010, 「북한군의 건설과 폐퇴」,
『군사논단제60호』, 한국군사학회
방인후, 1970, 『북한조선노동당의 형성과 발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
제연구소
서상문, 2009. 「새로운 사실, 새로운 관점: 毛澤東의 6·25전쟁 동의과
정과 동의 의미 재검토」, 『軍史 제71호』, 국방부군사편찬연
구소
서상문, 2007, 「6·25전쟁초기 중국의 군사적 대응」, 『군사연구 제122
집』, 육군본부
염민호, 1994, 『조선의 용군연구(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서울: 도서출판 중심
「6·25내막/모스크바 새 중언6」, 『서울신문』, 1995.5.28
「6·25내막/모스크바 새 중언14」, 『서울신문』, 1995.6.16
「6·25내막/모스크바 새 중언21」, 『서울신문』, 1995.7.18
「6·25내막/모스크바 새 중언25」, 『서울신문』, 1995.7.23
「6·25내막/모스크바 새 중언26」, 『서울신문』, 1995.7.25
「나와 6·25」, 『조선일보』, 2010.5.17

중국문헌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8, 『毛澤東軍事文集5·6』.中國: 軍事科學出版社

6·25전쟁 시 중공군의 역할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전망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7, 『周恩來年譜(1949-1976)上』, 中國: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1990, 『周恩來外交文選』, 中國: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5, 「東北解放戰爭期間北朝鮮駐屯東北局判事處回憶」, 『中共黨史資料』 제17집, 中國:中共黨史資料出版社
- 中國外交部政策研究室, 1995, 『中國外交便覽』, 中國:世界知識出版社
- 中國外交部政策研究室, 2004, 『中國外交2000年』, 中國:世界知識出版社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2009. 『抗美援朝戰爭史 I, II, III』, 中國:中國軍事科學院出版社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1988,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史』, 中國:軍事科學出版社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1994, 『抗美援朝戰爭運動戰若干問題研究』, 中國:軍事科學出版社
- 彭德懷傳記編寫組, 1988, 『彭德懷軍事文選』, 中國:中央文獻出版社
-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編, 1990, 『朝鮮戰爭』, 中國:國防大學出版社
- 江擁輝, 1996, 『三十八軍在朝鮮』, 中國:遼寧人民出版社
- 金宇鐘'李炳哲, 1992, 「朝鮮族人民在東北解放戰爭中的貢獻」, 『中國朝鮮族研究論叢 II』,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羅正楷, 1997, 『中國人民解放軍大典』, 中國:光明日報出版社
- 劉金質, 2008,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5』, 中國:社會科學院
- 劉樹發, 1995, 『陳毅年譜下載』, 中國:人民出版社
- 徐焰, 1990, 『第一次較量-抗美援朝戰爭的歷史回顧與反思』, 中國:中國廣播電視出版社
- 孫佑杰, 1994, 『鴨綠江告訴你』. 中國:人民文學出版社
- 柴成文'趙勇, 1992, 『板門店談判』, 中國:解放軍出版社
- 楊得志, 1987, 『爲了和平』, 中國:長征出版社

- 楊迪, 1998, 『在支援軍司令部的歲月里』, 中國:解放軍出版社
- 王泰平, 1999,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1970~1978)III』, 中國:世界知識出版社
- 李連慶, 2000, 『中國外交演義-新中國時期』, 中國:世界知識出版社
- 鄭判龍, 1996, 『세계중의 우리민족』, 中國:遼寧民族出版社
- 丁洪章, 1991, 「中國共產黨章程 1969.4.14」, 『中共黨員大辭典』, 中國:華齡出版社
- 趙素芬, 1988, 『周保中將軍傳』, 中國:解放軍出版社
- 周保中, 1992, 『東北抗日遊擊日記』, 中國:人民日報社
- 崔慶植, 2004, 『全球化背景下, 中國民族政策及朝鮮族歷史、現狀和未來(中國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 崔海巖, 1992, 『朝鮮義勇軍第1支隊史』, 中國:遼寧民族出版社
- 鐸德山·徐永軍, 1997, 『周恩來傳1949~1976』, 中國:中央文獻出版社
- 唐世平, 2003, 『塑造中國的理想安全環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胡淑英, 1987, 『東北抗日聯軍教導旅始末』, 『黑龍江黨史資料』 제10집, 中國:哈爾濱出版社
- 洪學智, 1990, 『抗美援朝戰爭回憶』, 中國:解放軍文藝出版社
- 『人民日報』, 1999.6.5

인터넷

- <http://baike.baidu.com/view/63237.htm>, 검색일 2010.4.2
- <http://bbs.news.163.com/bbs/history/97461082.html>, 검색일 2010.5.4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7/, 검색일 2010.5.24
- 中華人民共和國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大使館, 中朝關係概況 <http://kp.china-embassy.org/chn/zcgx/zcgxgk/t288050.htm> 검색일
10. 04. 28

The role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during the Korean War and Prospect of China's Role
in the event of Contingency in North Korea

Choi, Kyung-Sik*

The year 2010 is the 60th anniversary commemorating the Korean War. China intervened in the Korean War with the logics such as "To Resist the U.S.'s Aggression and Aid North Korea," "Save Endangered Home & defend Nation," and "If the Lips Are Gone, the Teeth Will Be Exposed to the Cold or If One of Them Falls, the Other is in Danger."

However, China had a deep and long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1st Chinese Civil War, war against Japan imperialism, and 2nd Chinese Civil War.

China has consulted with Kim Il-sung on his invasion of South Korea at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and played a casting vote role in the execution of the invasion plan.

During the Korean War, the PLA supported the North Korea's regime by its action, and made the Korea Peninsula divide into two semi-permanently. Even after the war, China continues to mainta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by helping North Korea build the Kim Il-sung's Kingdom. Currently, whenever any issue related to North Korea ris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definitely gets involved in those issues and exercises its power.

* The Vice-President, Korea Association of Military Studies

Conditionally 'either armed aggression or, and wartime' in North Korea, China would follow the "Clause of Military Auto Intervention." In addition, China is very likely to establish refugee camps for North Koreans in the Northeastern-Three-Province and to provide rear bases or guerrilla camps for pro-Chinese sects. Furthermore, voluntarily playing a role as spokesman of North Korean Regim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will exercise enormous influence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Korean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North Korea, The Role of PLA and China, The Event of Contingency in North Korea , Military Auto Intervention